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통치하는 정치적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우심을 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일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2월 20일 (토) 제 157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대통령 후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

CT, 포스트-크리스천 시대에도 신앙인 대통령이 요구되는 이유 역설

현재 미국 정치계는 30년 넘게 무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해온 버니 샌더스 의원을 비주류 정치인의 대명사처럼 말한다. 그만큼 과연 샌더스 의원이 노련하고 풍부한 정치, 외교 경험을 무기로 삼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 지명을 따낼 수 있을지, 나아가서 미국의 첫 유대계 대통령으로 탄생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버니 샌더스 후보의 종교 즉 철저한 휴머니스트로, 신앙을 갖지 않은 점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미국 사회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통합시킬 대통령의 리더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샌더스 돌풍'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샌더스 후보의 철저한 무종교성의 위험성을 말해 주면서, 대통령 후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다(Why a Post-Christian Nation Needs a President of Faith: Religion gives candidates an advantage in advocating for all).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서 신앙없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함에 따라 기독교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통계나 연구들을 통해 미국은 점점 더 "포스트-크리스천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크리스천이 아닌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인들이 크리스천 전통에 속하지 않은 대선 후보를 만난 것은 미트 롬니였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은 불문교인인 롬니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2016 대선을 맞아, 가장 강력한 비크리스천 대선 예비 후보는 바로 힐러리 클린턴의 아성을 무너뜨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웃사이더' 버니 샌더스 후보이다.

위싱턴포스트는 샌더스의 종교적 견해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애매모호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다: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연관돼 있게 하고, 나아가서 모든 삶이 서로 연결되며, 우리 모두가 서로 연대되도록 하는 의미이다." 샌더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하나님 개념은 제니퍼 M. 헤치가 최근 콰츠(Quartz)에 기고한 글(HUMANIST HERO: Bernie Sanders' lack of religion makes him better for America)의 결론처럼, 샌더스는 철저한 휴머니스트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헤치는 샌더스가 바로 극명하게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나라를 맡아 책임지고 끌고 나갈 적임자라고 말한다. 바로 기존의 대통령들이 가졌던 어떠한 특정한 종교적(기독교) 동기가 아닌 보편적인 윤리, 일치, 그

리고 연민을 샌더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헤치는 미국에서 어떠한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들을 인용하면서, 이처럼 세속화되어지는 국가에는 반드시 세속적인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중요한 물음을 갖게 한다: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동성 결혼이나 낙태와 같은 첨예한 쟁점들에 대한 논쟁들이 크리스천과 세속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리더가 이러한 긴장들을 조율할 수 있는지? 세속적인 리더를 선출해서, 그 그녀가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다양한 종교적 그룹들을 중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지?

(3면으로 계속)

금식은 천국 향해 속도 내는 영적훈련!

CT, 사순절 금식훈련 유익 소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했던 영적 훈련을 배울 때 분별력도 갖게 된다. 시대가 다르니 훈련 방법도 달라야 한다. 장인의 작업실에서 배우는 도제처럼 우리는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룻바하우스의 공동창립자이며, "희망에 눈뜨다"(The Awakening of Hope: Why We Practice a Common Faith)의 저자인 조나단 월슨하트그로브 목사는 '금식 훈련'이 바로 우리에게 유용한 영적 훈련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한다(What Classic Spiritual Discipline Needs the Most Renewal Among American Christians?).

금식(fasting)은 빠름(fast)의 의미... 천국을 향해 속도 내는 것 금식하면 진정한 잔치상은 풍성한 음식 아닌 풍성한 교제로 차려져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갈망을 자주 표현한다. 첫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갈망한다. 정신없이 반복되는 업무와 온라인상의 만남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홍수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소외감과 고독을 느낀다.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집을 그리워한다.

둘째, 정의를 갈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아프리카의 소년병, 아시아의 성노예, 우리

동네 낯선 사람들을 향한 사랑임을 알고 있다. 특히 1800년대 후반부터 정의는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슬로건이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집과 평화를 이루는 정의를 갈망하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매순간 온전히 붙잡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값싼 위로와 즉각적인 만족감을 좇느라 힘을 소진한다.

(9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급진 무슬림보다 극우주의자가 더 위험 2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중국 종교정책의 상반된 신호 노봉린 박사 13면	 세계적인 기독 언론협회 독후감 김영국 집사 15면
---	--	--	---	--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PGM

선교사집중훈련

PGM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함께 동참할

전문인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일정 2016년 4월 14일(목)-16일(토) 2박 3일
등록비 개인 \$200 부부 \$350 (항공료 자부담)
장소 필라 안디옥교회 (1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훈련내용 선교의 제4물결, 선교란 무엇인가?, 타문화권 선교전략, QT 및 중보기도, 현대선교의 이해, 전문인선교사세, 전도훈련, 선교간증 및 사례발표 등

admin@pgmusa.org www.pgmusa.org 610-397-0484

2016년 PGM북미권역선교사대회

일정 4월 18일(월) - 20일(수) **장소** 필라 안디옥교회

강사진

 호성기 목사 필라안디옥교회 PGM선교회 국제대표	 정인수 목사 역물관학원임장로교회 PGM선교회 이사장	 양춘길 목사 참그교회	 배현찬 목사 주계수교회 NCKPC/PCUSA총회장
 고훈 목사 뉴욕 학은교회	 김현동 목사 실례영교회	 김은범 목사 사망의 글로버비전교회	 김기석 목사 그린스보로제임장로교회

중남미권역선교사대회

일정 2월 23일(화) - 25일(목)
장소 Hotel Soleir Antigua

아시아권역선교사대회

일정 4월 27일(수) - 29일(금)
장소 용인 다누리교회

유럽아프리카, 중앙아시아권역선교사대회

일정 6월 2일(목)-4일(토) **장소** London Newtown Church

급진 무슬림보다 극우주의자가 더 위험

뉴스위크, “미국내 반정부 폭력, 우익극단주의자가 최대 위험” 보도

2012년 6월 미국 뉴욕주 북부 스킨셔의 작은 중국 식당에 앉은 남자의 얼굴에 천연색 네온사인 불빛이 비쳤다. 가공할 공격 음모를 꾸미는 극단주의자였다. 지원자가 필요했던 그는 동참 의사를 밝힌 한 남자를 만났다. 인근의 모든 사람을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일이었다.

공격을 계획한 주모자가 공모자에게 말했다. “호흡기를 가진 모든 것이 다음날 아침까지 죽을 것이다. 냄새 나는 시체가 쌓인 것보다 더 달콤한 게 있을까?” 그러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선 남자는 미 연방수사국(FBI) 정보원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녹음됐다. 그 후 몇 달 안에 또 다른 남자가 음모에 합류했다. 2013년 6월 FBI 요원들이 스킨셔 부근 사티코크에 있는 허름한 창고를 급습해 방사능 무기를 조립하던 그들을 체포했다.

미국 정치인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거론하며 공포를 부추겨 표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는 그런 유형이 아니었다. 주모자 글렌던 크로퍼드는 공장 정비공으로 상냥해 보였다. 방사능 무기 제조에 도움을 준 에릭 페이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점잖은 남자였다. 그런 악의 없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그들의 믿음은 사악했다. 크로퍼드는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극단주의 KKK 단원이었다. 그가 페이트와 함께 꾸민 음모는 무슬림 수십 명과 뉴욕주 주지사 공관·백악관의 관리를 죽이는 것이었다(RIGHT-WING EXTREMISTS ARE A BIGGER THREAT TO AMERICA THAN ISIS).

미국 사회엔 그들을 포함해 알려지지 않은 수천 명의 극단주의자가 숨어 있다. 워싱턴 소재 연구소 뉴아메리카에 따르면 2002년 이래 미국에서 이슬람주의자는 9차례의 공격으로 4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반면 우익 극단주의자는 18차례의 공격으로 48명을 살해했다. 미국 내부의 극단주



2002년 이래 이슬람주의자 9회 공격 45명 살해, 극우주의자 18회 공격 48명 살해
그들 이끄는 힘은 이념보단 사회적 네트워크...잘못된 정보 거짓말 믿어 사태 악화

의 증오심과 음모론을 자양분으로 번성한다. 흔히 정부가 운영하는 수용소가 있거나 계엄령 선포가 임박했다거나 총기를 압수하려 한다는 등 섬뜩한 허풍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뿜는 정치인과 방송인이 증오심과 음모론을 부추긴다. 그런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이런 극단주의자는 소수 민족, 비기독교인, 낙태시술 의사, 정부 관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미국을 구하는 싸움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폭력성은 갈수록 증폭된다.

트라이앵글 테러·국토안보센터는 지난해 6월 “미국의 범죄행 기관은 급진화 된 무슬림이 아니라 반정부 극단주의자의 정치적 폭력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법집행 기관 외부에선 거의 모르지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진다. FBI에 따르면 지난해 9개 주에서 과격단체 단원들이 무슬림 학교와 주민회관, 사원을 ‘작

전 목적’으로 감시했다. 또 미시시피주의 무장 극단주의자는 무슬림 1명을 납치해 참수한 뒤 인터넷에 그 장면을 올리는 것을 모의했다. FBI는 우익 극단주의자가 가짜 연방요원·외교관 신분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이나 외교관 행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안에 자신이 세운 정부에서 스스로 그런 요직을 맡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우익 극단주의자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지난 1월 무장 시위대는 오리건 주 밀루어 국립야생보호구역 일부 청사를 점거했다. 밀렵 증거를 인멸하려고 연방정부 소유 숲에 불을 지른 등 혐의로 기소된 목장주 부자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 반발한 그들은 정부와 싸우겠다고 필요하다면 목숨도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연방정부가 독재

를 자행하면서 헌법을 능멸했다고 주장했다.

심야 TV 토크쇼와 SNS에선 많은 사람이 그들을 조롱하며 알잡아봤지만 그곳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너무도 섬뜩했다. 그들은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대원 포섭용 비디오에서나 들을 수 있는 ‘순교’ ‘피바다’ ‘살해’를 외쳤다. FBI와 주 경찰이 1월 26일 그들을 급습해 점거자 대다수를 체포했을 때 시위대 대

변인 역할을 자임했던 로버트 피니컴은 교도소에 가기보다 죽겠다고 선언한 뒤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미국 도처의 다른 극단주의 민병대도 갈수록 과격해진다. 앨라배마·캘리포니아·조지아·뉴저지·오클라호마 주에선 KKK 단원 모집 전단이 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 조하네스버그의 경찰은 토지관리국(BLM)을 비롯한 여러 연방정부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남자의 집에서 폭탄과 부비트랩을 발견했다.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스프링스에선 2013년 교도소장 살인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던 백인 우월주의자가 경찰과 총격전 끝에 총상을 입었다. 루이지애나 주 라파예트에선 지난해 여름 영화관에서 관람객 2명을 살해한 남자의 일기가 공개됐다. 그 일기는 연방정부에 대한 분노와 인종차별주의 킬러들의 칭찬으로 가득했다.

캘리포니아 주 오크데일의 양봉 농민 2명은 정부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극단주의

자의 술책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오리건 주 밀루어 국립야생보호구역 일부 청사 점거자들이 체포된 다음 날 뉴햄프셔 주의 한 남자는 수류탄을 불법 구입한 뒤 체포됐다. FBI 정보원에 따르면 그는 ‘미국 본연의 헌법’을 복원하려는 단체 소속이며 20만 달러로 폭탄과 무기를 구입하려 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지난 3일, 경기 부천시에서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채로 집안에 11개월 정도 방치된 백골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에 의해 검거된 범인은 그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밝혀졌는데, 그는 독일 유학과 출신의 박사로 유명 신학대학의 교수라는 사실이 놀라움과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아직 사건의 구체적인 동기가 원인이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는 있지만, 1년 가까이 시신을 집안에 방치해 놓고도 태연하게 목회와 교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은 참으로 자연인으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의 하나이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 Stevenson)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모습처럼 그도 목사요, 박사요,

교수이기 이전에 한 자연인으로서 죄인 중의 하나일 뿐임을 인정한다. 어느 목사의 트위터에 올린 글처럼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죄인기에, "내 안에 그가 있다"는 자조 섞인 탄식에 공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한국 교회연합의 성명서에서처럼 이번 참극은 우리 모두의 감춰진 면 얼굴 중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더욱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어 벌을 청하는 심정으로 통렬한 회개와 반성으로 대오 각성해야 할 것도 분명하다.

그 사건이 있는 지 겨우 2주도 채 안된 오늘, 비슷한 유형의 뉴스를 접하고 있다.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한 어느 어머니가 큰 딸이 말을 듣지 않자 때려 숨지게 한 뒤 물레 매장한 사실이 5년(당시 7세) 만에 드러났다는 뉴스이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그녀는 미국 유학생 남편과 미국에서 살면서 두 딸을 낳았다. 그녀는 가정 식구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와 살다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당시 5살·2살이던 두 딸을 데리고 가출했다. 가출 직후부터 지난해 봄까지 지인의 집에 얹혀살면서 두 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도 않았으며, 큰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집 베란다에 가두고 밥을 주지 않거나 의자에 묶어서 회초리로 마구 때리는 등 자녀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 날도 큰 딸을 방 안 의자에 손발을 묶고 테이블로 입을 막은 뒤 회초리로 몇 시간 동안 때리고 내버려뒀다가 다음날 그가 숨진 것을 알고 딸의 주검을 차에 싣고 이를 동안 다니며 암매장할 곳을 물색하다가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 김양의 주검을 파묻었던 것이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가정 존속 살해 사건은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도에는 친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19개월간 집안 장롱에 숨겨 온 30대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업자금을 달라고 조르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어느 고교 1학년 학생은 "담배 피우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겠다"고 말한 어머니를 칼로 살해했다. 이를 말리던 70대 할아버지까지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속 살해 사건들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해야 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세계 3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연간 27만여 명이라는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추산인데, 그러한 성 범죄 중 근친 성폭행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아버지가 딸을, 오빠가 여동생을, 어머니가 아들을, 아들이 어머니를 성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란한 사회문화의 영향으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정 식구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태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부부 폭력, 아동학대, 부모학대, 근친상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실태이다. 가정파괴는 곧 교회 파괴와 국가와 민족의 어두운 장래와 멸망과 직결이 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정은 사회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근간이요 터전이기 때문이다. 가정이라는 근간이 무너지면 그 위에 아무리 고도의 경제성장, 과학기술의 발달, 인류문명의 혁신들도 오히려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재를 뒤집어쓰고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이다. 이제라도 가정을 살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식구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 교회의 목회보다도 먼저 가정목회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멀리 있는 선교지보다 우선 내 가정이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 설교와 가르침, 목회의 현상이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건강하고 성숙한 목회를 꿈꾸기 전에 먼저 가정의 행복과 건강한 관계의 회복을 꿈꾸어야 한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복과 부활의 새 생명이 시작되어야 한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가정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아:2:15). 내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내 가정이 사람의 꽃의 향기로 가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johndjc@yahoo.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p>·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p>	<p>·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대통령 후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

(1면에서 계속)

아니면 정말 경건하고 진실한 크리스천을 선출하여 우리의 종교적 자유나 관심을 보호하도록 해야 하는지? 광의적인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봅시다.

현재 미국은 종교 특히 기독교와 관련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기초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한 기독교적 도덕과 민감성이라는 유산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따라서 건국자들의 신앙, 기독교적 국가 등등 이러한

사람들에게 편중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한 리더의 힘을 상상해보라.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이 하나로 엮여 있는 미국이라는 다원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후보가 단지 어떠한 특정 세력에만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치의 주장은 정당화된다. 그러나 과연 세속적인 리더만이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고 표명하는 후보보다, 더욱 건강한 다원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까? 이론상으로는, 양쪽 다 공공의 선과 법이라는 테

한다”는 문장을 통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휴머니스트들이 말하는 세속적 중립적인 가치의 신화는 종교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한 자연스러운 시야에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종교라는 필터를 제거해야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는 또 다른 문제를 곧바로 야기한다. 바로 자신을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 격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이해나 관심에 동조하기에 힘들게 만들어 나가는 또 다른 우월주의를 만들게 된다. 만약 기독교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게 하

세속적 리더의 잠재적 위험 요소는 자신을 외부 객관적 관찰자로 여겨 후보자 신앙은 공동체 연대의식 제공·박해나 차별 반대 옹호근거 마련

논의들의 오래 된 세대들이나 하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치부되거나 배격되고 있고, 미국의 문화는 급진적인 자율성과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있다는 만족으로 대치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불가침은 인간성의 완성이라는 계속되는 성스러움(?)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감히 축복할 수 없는 값으로 구속되어진 것(고전 6:19-20)이라고 하기에, 크리스천들이 문화에 참여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의 세속적인 이웃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갈등들은 단지 불편한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중에서 많은 쟁점들이 연방대법원에서 마무리 짓게 된다.

종교적인 세력들과 포스트-종교적인 세력들 간의 긴장이라는 관점에서, 해치는 샌더스 후보야말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후보라고 극찬한다: “이처럼 다양한 나라에서, 어떠한 사

두리 안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권 후보의 신앙은, 최소한, 미국을 지켜나가야 할 리더의 덕목으로서, 유익이 있다는 점을 해치는 간과하고 있다.

세속적인 리더에게서 볼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 바로 자신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을 외부에 속한 객관적인 관찰자로서만 본다는 점이다. 해치는 샌더스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편중되지 않고 사람들을 위

는 필터로서 세상을 왜곡되게 본다고 생각한다면, 왜 기독교인들이 낙태나 동성애에 것처럼 열정을 다해 기도하며 반대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결론으로, 대통령 후보의 신앙의 부족이나 신앙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동일하게 믿는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후보자의

신앙이 바로 박해받고, 약하며 그리고 누군가에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옹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의 신앙은 바로 소속감 즉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연대 의식을 제공한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세속주의자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공동체 의식을 주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급진 무슬림보다 극우주의자가 더 위험

(2면에서 계속)

이런 우의 과거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왜 미국인이, 투표하기보다 정부와 무력으로 싸우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보다,



죽이고, 일자리를 구하기보다, 정부 건물을 폭파해야 한다고 믿을까?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에 관해선 수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 미국에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는 극우 과격분자에 관해서도 철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때다.

그들 정부가 티머시 맥베이를 달진 않았다. 악명 높은 반정부 극단주의자 맥베이는 1995년 오를라호마시티의 연방정부 건물 입구에서 트럭 폭탄을 터뜨려 16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폭력적인 우의 급진주의자 정부가 맥베이의 신조에 동의하거나

그런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가진 건 아니다. 사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부류로 구성된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의 대테러연구센터 소장 에어리 펠리저에 따르면 그들의 이념은 인종차별주의, 반연방주의, 원리주의로 압축된다. 각각 하부 단체가 속하다. 인종차별주의 진영에

는 KKK·네오나치·스킨헤드 같은 백인우월주의 단체가 포진한다. 서로 약간씩 다르다.

반연방주의 진영에는 민병대와 자칭 ‘애국주의’ 단체, 그리고 ‘자주시민(sovvereign citizens, 개인적으로 해석한 관습법을 따르며 정부의 법은 무시한다)’ 단체가 포함된다.

원리주의 진영은 주로 ‘기독교 정체성’을 주장하는 극우 단체로 구성된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의 대결이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후손과 이민족 집단 사이의 전투라고 믿는다. 폭력행사의 동기로 종교를 내세우는 반낙태주의 공격자도 크게 보면 그 부류다. 이런 이질적인 집단이 폭력적이든 아니든 각각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과거를 갈망한다.

그중 으뜸은 인종차별주의 운동이다. 주로 1865년 KKK 결성이 그 시발점으로 일컬어진다.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기독교 정체성’ 운동은 몇 십 년 뒤 시작됐다. (9면으로 계속)

‘시편’ 은에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36편 복을 받은 자여 그 복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인생의 행복은 솔로몬 왕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소유하고 보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목회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목회가 잘 되는 것? 목회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회자가 인젠가는 은퇴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며 추억이라고 하는 창고에 보관용으로 전락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복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삼고 추구하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은 나를 사랑하시는 복입니다. 그 복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복입니다. 그 복은 나를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나의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1:1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오늘 이 세상을 떠날 때라도 이 복은 나에게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족을 채워주는 것이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그림자입니다. 분명히 만족하여 복이라고 하지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감격하였으며 행복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족도 복이라고 하는 그 만족도 곧 시들어지고 장미꽃과 같이 되어 광야 생활에서 가시가 되어 자신의 마음을 찢어 괴롭히는 것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참된 영원한 복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오늘 나의 복으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소경 앞에 아름다운 꽃이 있을 지라도 보지 못하면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같이 나의 현실의 삶에서 복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므로 거두어들이는 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화무쌍하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복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 23편에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타나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찾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밤에도 하늘에는 별들을 두신 것과 같이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여 감사하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소유에서 행복함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에서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로 거두어들이는 때 행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넘치기 위하여 생각의 훈련을 부단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항상 같이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현실에서 찾도록 살펴보시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위하여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광야 40년간에 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야 보고 감사하며 거두어들이지 말고 비록 문제들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는 것의 증거들이 작게 보일 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거두어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나의 뜻을 이루어 성취하는 데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복은, 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시는 그 은혜를 보고 사는 것이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의 복은 영원한 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고 감사하며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곧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 복은 이 곳을 떠나 영원히 살 곳에서도 그 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그 복을 누리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복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여! 아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0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0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제40회 총회를 소집 공고하오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예약 일정과 등록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회일시: **주후 2016년 5월 17일(화) - 5월 20일(금)** (3박 4일)
- 총회장소: **Crowne Plaza Hotel** (www.crowneplaza.com/cherryhill)
2349 Marlton Pike West, Cherry Hill, NJ 08002 (Tel:856-665-6666)
- 숙 식 비: 총회 기간의 숙박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미화(USDollar)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5일까지)	2차(3월 15일까지)	3차(4월 15일까지)
2인1실(1인당)	\$ 390	\$ 435	\$ 475
1인1실	\$ 710	\$ 750	\$ 790
부부	\$ 770	\$ 850	\$ 930
원로/공로 목사(2인 1실)	\$ 350	\$ 390	\$ 430
(부부)	\$ 690	\$ 740	\$ 790

* 현지 선교사와 영어 노회원에 대해서는 2인 1실에 한해서 50% 할인함.

- 개인 숙박 :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등록비 \$150을 납부하셔야 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식비 \$200을 납부하거나 식권을 구입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실 분은 미리 알려 주십시오.
- 등록 및 송금 안내 : 등록 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 check 혹은 money order로 보내 주십시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취인 (payable to) : KAPC-PHILA
 - * 주 소 : Rev. Hee Kwon Jeong (정희권 목사)
204 Lincoln Drive West Ambler, PA 19002
(215) 407-3898 (Cell)
- 교통안내: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다수의 차량을 배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원활한 차량 운행을 위해 도착 공항과 도착 시간 및 항공편을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장소가 필라델피아 인근에 있는 관계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께서는 필라델피아 국제공항(PHL)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첫째날(5월 17일)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저녁 식사는 오후 6시부터, 그리고 교회 예배는 오후 8시에 드립니다. (1) 등록 마감일(4월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호텔 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는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 기 타: (1) 영어 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 통역 시설이 준비됩니다. (2)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준비 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 처 - 호텔 : 이재철 목사 (215) 833-8070, hopeljc@gmail.com
- 관광 : 이병은 목사 (215) 852-1723, hope2c@hotmail.com
- 기타 : 최해근 목사 (267) 471-7777, hankschoi@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영수 목사 서기 조용철 목사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전동진 목사 서기 최해근 목사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한 가족

스원돌 목사님이 주일설교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교통법규부터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작은 일도 지킬 수 없다면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에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만 빨간 신호등을 지나고 말았다. 그런데 바로 그 광경을 부목사님 한 분이 마침 뒤에서 보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알고 부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놀려줄 계락을 꾸미고 목사님을 조대했다. 그런 눈치를 췌 목사님이 고민고민하다가 솔직히 고백하기로 하고 조대된 장소로 나갔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쓴 목걸이를 앞에 걸고 나

타났다. 장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뒤로 돌아서는데 등 뒤엔 이런 등걸이가 걸려 있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허물과 죄가 용납되고 덮여지는 곳- 그곳이 가정이다.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는 곳- 그곳이 교회이다.

구원이 무엇인가?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있는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당신자신을 가족과 관련된 어휘로 표현하신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다. 토레이 신부는 ‘기독교’에 가르칠 교(交) 자를 쓰고 있는데 사귄 교(交) 자를 쓰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과 그의 만남이요, 하나님 가족들의 사귀이요 하나님 가족의 교제요 영적인 가족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가족은 서로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고 이혼으로 헤어질 수도 있고, 그 가족이 늙어 죽으면 영원한 이별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가족이 구원받아 나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천국에서 까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이다.

그렇다. 교회는 가족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빌딩이나 건물도 아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아니다. 어떤 나이와 취미가 비슷한 문화클럽도, 종교클럽도 아니다. 성경에 보면 “좋지 않다”는 말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바로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어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 그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부모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이고 물론 그 교회의 일원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나 어떤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습니까?” 한다면, 그런 말은 짝퉁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다. “나는 오른 손이다. 그러나 내가 붙어있는 몸은 없다” 말이 되는가? “나는 군인이다. 그러나 소속된 부대가 없다.” 그런 군인이 싸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교회에 등록할 때 나는 이미 교회의 일원 그 지체인 것이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족관계. 소속이 분명해 내 교회가 있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5절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다.

두가 내 몸의 일부이듯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 교회 한 식구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는 말은 몸에 붙어 있어 말하자면 분명히 교회에 소속되어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더욱이 그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잘 타던 모닥불도 그 나뭇가지를 하나씩 들쭉 셋씩 떼어놓으면 나뭇가지도, 너도 꺼져 버리고 만다. 몸인 교회를 떠나 나 혼자 덩그러니 세상에 나와 있으면 내 신앙도 식어지고 그 날로 내 신앙의 불은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병이 들면 다른 세포들이 일제히 달려가서 도와주며 영양분을 나눠준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세포가 생겨나. 다른 세포들로부터 도움도 받지도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세포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다. 이런 세포를 소위 암세포라고 한다. 이것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면 악성종양이 되어 사람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이다. 교회라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 그 지체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혼자서 놀겠다는 세포는 위험하다. 다른 세포들과 더불어서 한 구역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생활이다.

“코이노니아”란 말은 교제란 말인데 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도 있다. 네 아픔에 내가 참여하고, 너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이다. 그런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이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라 불리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이다. 교회 틀만 밟고 가는 손님이 아니라 교회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써 마음을 우리 교회가족 안에 두시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충분히 받기를 바란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 교회)



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아,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는구나. 아하, 안될 상황에서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성경에는 좋은 일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는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부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돌이 가둬져서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수많은 거짓 선

지자들이 각기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거짓 영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미혹하고 나뉘게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보면, 겉 사람은 멋진 왕같던데, 중심이 삐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이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생각은 사건을 만나면 열매를 드러냅니다. 어느 날 지자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언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더냐?’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면 진짜는 뺨을 맞게 됩니다.

사울의 망령된 예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 두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가문 가운데서 또 약한 사울을 하

다시 말하면 방향이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생각은 사건을 만나면 열매를 드러냅니다. 어느 날 지자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언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더냐?’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면 진짜는 뺨을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이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생각은 사건을 만나면 열매를 드러냅니다. 어느 날 지자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언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더냐?’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면 진짜는 뺨을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이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생각은 사건을 만나면 열매를 드러냅니다. 어느 날 지자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언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더냐?’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면 진짜는 뺨을 맞게 됩니다.

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시간은 아직 남았지만 마음이 점점 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 세 시간을 기다리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자기 스스로 짐승을 잡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끝나기가 무섭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변명합니다. ‘적군은 쳐들어오고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

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명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13,14절)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누구든지 다 예

배를 인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록하게 지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법입니다. 그 법이 기준이 되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 법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해도 구원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안에 온다’ 했으면, 일주일 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데 누가 기다립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 순종이 참 지혜
사울 왕이 힘을 써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거짓되고 자기 중심적인 예배드린 후부터 사울은 오히려 더욱더 거짓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그가 여전히 왕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이미 폐하셨습니다.

(7면으로 계속)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무엘상 13:8-1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사람인가? 과학인가? 물질명명이 발달하면서 만물의 영장(靈長)인 사람은 과학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미 상당한 분야에서는 사람의 몫을 과학이 대신하고 있다. 과학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촉박이여기면 과학은 이제 저주까지 회자되고 있다. 마땅한 사람의 몫을 과학에게 침해를 당해 사람이라는 정체성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늘까지 높이러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참담한 실패가 재연되고 있는 중이다.

사람을 위협하는 과학을 사람은 인공지능(人工知能, AI)으로 지칭한다. 인공지능은 철학적으로 인간성이나 지성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즉 인공지능 지능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범용 컴퓨터에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이 용어는 또한 그와 같은 지능을

위하고 있다. 이 같은 상상은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시리즈 등 수많은 공상과학 영화로 구체화됐다. 때문에 이번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은 바둑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다.

빙산(氷山)은 물 위로 드러난 부분보다 물 밑에 감춰진 부분이 더 많다. 세상에도 보이고 들리고 느끼게 되는 현상보다 더 많은 것이 감춰진 이면(裏面)에 있다. 누가 인간과 인공지능을 지닌 컴퓨터와의 대결을 주도하는지 모르나 어쩌면 여기에는 인간경시풍조가 가세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 만약 인간을 인공지능이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흠이 갈 수도 있다. 이를 노리는 세력! 과연 없는 것일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즉

바둑 프로그램들과의 대결에서 무려 99.8%의 승률을 기록했다. 가히 '바둑 괴물'이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별명이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알파고의 도전을 이세돌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10여 년째 세계 바둑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세돌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이 놀라울 정도로 영리하며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들었지만, 나는 이번 대국에서는 이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대국을 앞둔 소회를 밝혔다. 기라성 같은 기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바둑계에서 세계 1위를 10년째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테니스로 비유하면 '테니스의 황제' 로저 페더러가 10년 동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것과 같고, 골프를 치면 '황제' 타이거 우즈가 10년째 상금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방법을 신앙의 관점에서 찾아보려는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은 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만약 인공지능의 컴퓨터가 하나님께 도전을 해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세돌처럼 받아들이셨을까? 아마도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인공지능 아니라 더한 그 무엇이라 해도 지실 일이 절대 없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공지능을 지녔다 해도 피조물인 컴퓨터에게 패하실 확률은 0.0000...1%도 없다. 그러나 인간 이세돌은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세돌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대상으로 택한 인간이라면 이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인간과 인공지능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백과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판단, 추론, 학습 등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나아가 들면서 퇴보하는 인간의 한계가 과학이 가지는 위협이기도 하다. 이런 위험한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바둑계의 최강자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최고수인 구글의 알파고(AlphaGo)가 맞붙는 일정이 확정됐다.

구글은 2016년 2월 5일 "차세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 오는 3월 9일부터 5번 기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세계 바둑 챔피언이 인공지능 컴퓨터와 대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상 초유의 이벤트로 전 세계가 이 경기를 주목하게 됐다. 만약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패한다면 체스에 이어 20년 만에 바둑 최강자 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내주는 셈이 된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했는데 인공지능을 지닌 피조물에게 졌으니 만물의 영장자리도 내줘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인간은 컴퓨터와 IT기술, 인공지능 등이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함에 따라 먼 미래에 지구의 주인이 기계에게 넘어가지는 않을까 항상 두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시시때때 기회를 엿볼 뿐만 아니라 기회가 오지 않으면 갖은 방법으로 불안과 불만을 조성한다. 의심, 시기, 질투, 비교, 모함, 반목 등의 자기 비하가 커질수록 공격하거나 파괴할 틈새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국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5전3선 승제로 진행되기는 하되 이번 대국은 한 선수가 3승을 달성해도 승부가 종료되지 않고 5경기 모두 펼쳐진다. 3월 9일 제1국이 시작돼 2국은 다음 날인 10일 펼쳐진다. 3국은 12일, 4국은 13일, 5국은 15일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모든 대국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왜 그럴까? 승부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판을 다 채우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국 장소와 운영 방식, 생중계 등 자세한 내용은 구글이 이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국에는 상금 100만 달러(약12억원)이 걸려 있다. 알파고는 구글의 차세대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프로 바둑기사와의 대국에서 승리해 주목받았다. 알파고는 최근 '유럽 바둑 챔피언'인 중국의 판후이(2단)와 다섯 차례 대국을 벌여 모두 승리했다. 알파고는 무시무시한 경기력을 과시하며 다른 회사의 인공지능을 보유한 컴퓨

대단한 것이다. 그런 이세돌이 바둑 괴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공지능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속내는 알 수가 없다.

이번 대국은 체스에 이어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바둑 최강의 자리를 내줄 것인가?'가 결정되는 중요한 대진이다. 덕분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체스의 경우 이미 약 20년 전인 지난 1997년 러시아의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IBM의 슈퍼컴퓨터 '딥 블루'와의 대결에서 패하고 말았다.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라 하여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인공지능 컴퓨터는 감정의 기복은 지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 상황에 따라 감정 즉 심리(心理)의 변화가 막대한 것이 인간이다.

예를 들어 5국 중 2국을 이세돌이 졌다고 치자. 이세돌은 3국을 시작하기 전 엄청난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길 수 있다는 자기체면이 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컴퓨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설사 이세돌에게 두 판을 지고 있다 해도 컴퓨터는 이미 진 두 판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인공지능으로 이세돌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교묘하게 심리전을 펼칠지도 모른다.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었다.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실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형태를 지닌 것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이나 지혜는 창조의 영역이 된다. 결국 사람이 도전할 분야 혹은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도 인공지능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대결을 벌이지는 않는다. 그저 대체하거나 편리하게 사용될 뿐이다. 그러나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은 다르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인공지능이 지는 것은 전혀 피해가 없다. 인간이 지게 되면 그 파급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가 노리는 의도일 수도 있다.

2016년 1월 23일 막을 내린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다. 이번 주제를 이끈 가장 큰 논의는 '인공지능(AI)'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지능적인 사회를 만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해 자동화가 일어나는 사회로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일상 전체에서 인간의 영역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인간의 일지리와 역할에 대한 문제로 파생된다.

〈6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드리고자 섬기며 봉사하는 집사입니다. 어떻게 돕고 섬기는 것이 좋은지요? 신앙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바울의 선교사역에서 평신도로서 섬김으로 동역자로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간단한 섬김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팔로스 버디스에서 Kim

A: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하신 후에 자기를 도울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대오, 시몬, 가롯유다였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며 배우고 훈련받는 일꾼들이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눅8장 1-3절을 보면 전도여행 시에 자기들의 소유를 바쳐 주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물질로 수고하고 음식으로 돕고 섬긴 귀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일곱 귀신에게서 고침 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해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무명의 다른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여인들과 무명의 손길들이 예수님의 전도사역을 따라다니며 음식봉사로 물질봉사로 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손길과 봉사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도 보면 그의 1, 2, 3차 선교사역에서 그를 돕고 섬기는

무명의 손길들이 예수님 전도사역을 따라다니며 음식봉사, 물질봉사로 섬겨

평신도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제 2차 선교여행에서 드로아에서 본 마게도나 환상에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 속에 나온 마게도나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요 그는 역사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는 늘 바울을 근절해 따라다니며 말동무가 되고 육체적 연약이 많은 바울의 개인 전담의사가 되고 간호하고 돌보며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바울 곁에서 지킨 사람입니다(딤후4장).

행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는데 그는 빌립보에서 만난 여제자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자기 집을 오픈하여 온 가족을 회심시키고 세례 받게 한 후에 자기 집에서 빌립보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는 재력이 있는 사업하는 여성으로 물질과 회생정신으로 바울과 빌립보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재력도 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헌신적인 루디아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텐트메이커(Tent-Maker) 일을 하다가 만난 재력가로서 부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믿은 교인요 고린도교회와 예베소교회 사역에서 바울을 도와 헌신한 자기 목자라고 내걸고 회생적으로 도운 동역자들입니다(롬16:3-4).

그리고 고전16:15-18절을 보면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테바나의 집 식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로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로서 고린도교회의 교회봉사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스테바나와 브드나드와 아가이교를 예로 들면서 바울은 그들이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사람들과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교회 동편의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인 비비아(롬16:1-2). 그녀는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바울의 선교사역을 물질양면으로 보좌자처럼 도운 사람이다. 그녀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심부름 차 로마교회로 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바울사도는 좋은 평신도 동역자들로 인해 그의 선교사역이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6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 인자로 개혁신당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6년 5월 13(금) - 16(월)
2) 고시 장소: Philadelphia,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초지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말라기 4:1-6

(2) 신약 주해 - 고린도전서 2:1-5

(3) 논문 제목 -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견해와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4) 설교 본문 - 신약: 로마서 1:18-32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② 필기고사 답일에 본인인 선택한 문목을 중심으로 설교 설기교사를 치를.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① Letter Size(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②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 이내).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 주를 사용 할 것.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 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 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6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증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00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6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0회 총회기간(5월17일-20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허윤준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3일-16일 총회고시장소)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하려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인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허윤준 목사(Rev. Yun Joon Hur) / Email: jameshur63@hotmail.com
NY Cell: (718)637-1470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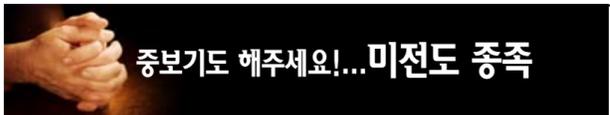
1)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3) 고시부 회계: 김태업목사 (339)223-2763, daenaree@yahoo.com

총회장: 김영수목사

서기: 조용철목사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가니스탄의 난갈라미(NANGALAMI)



20세기 가 시작될 때까지 아프가니스탄 땅은 주로 여러 종족들이 연합해 통치했다. 그러나 대항하는 우두머리들과 외국의 정부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하려 했고,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독립국가지만 내전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70개 이상의 종족들이 살고 있으며, 난갈라미(그란갈리로도 불림)

작은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의 1% 미만인 소수민족이다. 난갈라미족이 코나르(Konar)강 남쪽 기슭의 그랑갈리와 제미아키, 두 마을에 산다는 것 외에는 난갈라미족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 지역의 기후는 온화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적당하게 강우가 충분하다. 난갈라미라는 이름이 종족명에 따라 마을명이 붙여진 것인지, 마을 명에 따라 종족명이 붙여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난갈라미족의 언어는 그랑갈리어라고 불리며, 이 언어는 인도-이란 언어군에 속한다.

삶의 모습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는 본래 농업과 목축에 기초한다. 산악 지역에는 비옥한 땅이 거의 없는 반면 좋은 목초지가 있다. 그 결과로 난갈라미족은 어느 정도 유목적인 생활방식을 위해 계절을 따라 가축 떼를 데리고 이동한다.

이 지역의 다른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난갈라미족이 기능공들인 하위 계층과 토지소유자들인 상위 계층, 두 계층으로 나뉘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공들의 만드는 물건에는 주로 나무공예품, 직조, 제철, 도기, 바구니 등이 있다. 이들이 만든 물건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 시장(Bazaar)은 농산품과 기능공들의 물건을 교환하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 전통적인 수공업품들은 널리 보급돼 있으며 질이 매우 좋고, 때로는 매우 정교하다.

난갈라미 사회의 기본 단위는 농사짓는 땅과 목초지로 둘러싸인 촌락이다. 토지는 가족의 남자 우두머리 소유이며, 목초지 사용의 권리는 그의 아들에게 상속된다. 협력은 혈족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친척들은 위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는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언덕의 경사면을 따라 세우되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시내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가족의 크기는 그 가족의 부에 따라 달라진다. 돌담으로 집안이 생활을 위한 곳과 가족을 위한 곳,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며, 대부분의 집안 소유물들은 돌담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계층이 구별되는 것 외에도, 난갈라미족에서는 성에 따라 노동이 구별된다.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식사를 준비한다. 여자들은 빵을 준비하는데, 빵은 농사에 대한 책임을 상징한다. 남자들은 낱곡의 소산을 제공해야만 하고, 이는 가족을 치는 책임을 상징한다.

신앙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이슬람교가 소개된 것은 7세기경 아랍의 침입 때였다. 9세기까지 다르와지족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오늘날에는 다르와지족의 100%가 수니파 이슬람교도들이며,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없다. 다르와지족은 이슬람교도로서 유일 신 알라를 믿으며, 매일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고, 금식하고, 가능하다면 메카로의 성지순례를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아프가니스탄의 다수 종족들 간의 관계는 갈등으로 전철되어 있다.

다. 역사적으로 좀 더 강했던 종족들이 약한 종족들을 지배하고자 했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누리스타니족은 강하게 저항했다. 소련의 침공과 계속되는 내전은 아프가니스탄을 파괴시켰다. 남아있는 사회적 구조는 거의 없으며,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갔다.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사역하는 (비록 난갈라미족을 위해 사역하는 단체는 없으나) 선교단체들이 있지만,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선교단체 관련자들이 철수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난갈라미족에게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전에 무엇보다도 내전이 끝나야만 할 것이다. 계속적인 열정적 기도로 우리는 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북 억류 임현수 목사 구명에 캐나다 의원들 나서

캐나다 연방의회가 종신노역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61) 목사 구명운동에 나섰다.



연방의회는 오는 17일을 '임현수 목사의 날'로 지정, 선포할 예정이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대적인 구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대내외에 천명한다. 12일 임현수 목사가 담임으로 있던 온타리오주 토론토 큰빛교회(www.lkpc.org)에 따르면 캠페인에는 캐나다 최초의 한인 여성 출신 연방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 의원과 토니 클레멘트 하원의원, 로나 엠브로스 보수당 임시대표 등 보수당 관계자, 알리 에사시·오마 알라브라 등 자유당 의원이 동참한다. 큰빛교회는 행사 당일 인터넷 등을 통해 15만 명이상이 서명한 청원서를 클레멘트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교회 신자들은 이날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기도회도 열기로 했다. 이 행사에는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형관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캐나다동노회(노회장 석대호 목사)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임 목사는 1996년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북한 동포들을 도우려고 110차례나 북한을 방문했다. 국내는 물론 북미주 교회를 돌아다니며 모금한 성금으로 북한의 탁아소, 양로원, 병원, 영아학교 등을 도왔다. 임 목사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높이 평가해 북한은 나진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도 발급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나진에 들어갔다가 북한에 억류됐고, 지난해 7월 3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평양 북수교회를 찾아 자신의 반북 행위를 '속죄'하는 예배를 올리기도 했다.

'인도주의의 구호 활동가'에서 하루아침에 '북한 체제 전복자'로 지목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북한 최고 재판소는 그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조성준 토론토 시의원을 비롯한 캐나다 동포들이 임 목사 석방 운동에 나섰다. 큰빛교회는 조속한 무사귀환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상상 초월하는 사순절 '금욕' 경제 효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독교 신자들이 참회·회개하는 사순(四旬) 시기의 경제 효과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 기사'가 나와 관심을 끈다. 사순 시기는 부활절(3월27일) 전 40여 일 간의 기간으로, 올해엔 10일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직전인 성 목요일(3월 24일)까지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11일 성경에서 규정한 '대



죄악'을 중심으로 사순 기간 이를 자제하고 금욕할 때 얻는 경제적인 효과를 다뤘다. 7대 죄악은 오만, 탐욕, 색욕, 질투, 식욕, 나태, 분노다. 2003년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순 기간 금욕 차원에서 최소 1주 또는 2주에 걸쳐 육류, 술, 초콜릿 등을 먹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4명으로 나타났다. 타임은 '오만'을 반성하려면 목욕·미용 제품에서 샴푸 제조사의 '브랜드'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이름 없는' 제조사나 유명 브랜드의 목욕·미용 제품의 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브랜드가 생소하다라도 값이 싸면 구매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여성들에게 '핑크 세금'을 피하라고 덧붙였다. 핑크(pink) 세금은 제조사가 일부 생활용품의 여성용 가격을 남성용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같은 제품이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약 7% 더 비싸게 산다고 한다. 남성용이라고 적혀도 성분에서 별 차이 없다면 사는 건 권고다. 이렇게 해서 아끼는 돈은 매번 목욕·미용 용품 판매점을 방문할 때마다 3-20달러 정도다.

'탐욕'을 누우려는 방법론은 자녀들에게 저축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게 으뜸이다. 부모가 애들에게 뭔가를 사주는 대신 장학 대학 학자금에 대한 은행 계좌를 터주면 아이는 매주 100달러씩 6주간 600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사순 기간 데이트 비용을 줄이면서 '색욕'을 회개할 수도 있다. 지난해 폭스 뉴스 매거진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평균 데이트 비용은 82.62-173.88달러라고 한다. 연인끼리 사랑을 주고받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에만 1인당 평균 146.84달러를 쓴다. 비싼 식당에서 근사한 저녁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꽃다발을 줄 수도 있지만, 집이나 저렴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해도 충분히 낭만을 느낄 수 있다. 4차례 데이트 때 100달러씩만 아껴도 400달러가 남는다.

타임은 질투를 줄이려면 사순 기간만이라도 소셜 미디어를 끊으라고 권유한다. 남이 올린 글과 사진에서 벗어나면 내 시간이 생겨 자존심도 되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탄산음료 육류를 줄이면 불과 40여일이 106.5달러가 생긴다. 미국 가정은 1년 평균 탄산음료 구매에 850달러, 한 달 평균 71달러를 쓴다.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면 술과 담배를 줄이면 된다. 하루에 담배 1갑, 한 달 평균 음주 비용 650달러를 사순 기간 40일로 환산하면 각각 240달러, 975달러다. 둘만 합쳐도 1천215달러가 절약된다.

나태한 생활을 반성하려면 근무 후 곧바로 집에 가지 말고 운동을 하면 된다. 담배, 술,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을 멀리하고 건강한 생활로 얻는 긍정적인 효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미 언론 '사이버 종교가 부대 강요'...안상홍 의혹 또 제기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미국 뉴저지 주에서 신도들에게 시한부종말론을 유포하며 낙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미국 언론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미국 타임지 계열의 유명 매체인 피플지도 하나님의교회가 미국에서 재산헌납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온라인 뉴스매체인 '미디어아이트(Mediaite)'

는 최근 '뉴저지 주의 종말론사이비종교가 여성들에게 낙태를 강요했다(Former Members Allege NJ Doomsday Cult Coerced Women Into Abortions)'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탈퇴 신도 3명의 증언을 토대로 뉴저지 주 린치우드 소재 하나님의교회 사이비종교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70대 한국여성이 하나님의 육신으로 현현했다는 것이 이 종교의 핵심"이라면서 "이 교회에 제기된 혐의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교회 대표자들이 신도들에게 낙태를 강요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디어아이트는 탈퇴 신도들의 주장을 빌려 하나님의교회의 교리 중 하나는 2012년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었고 신도들에게 자녀를 갖지 않도록 조장했다고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신도였던 미셸 라미레즈씨가 강요된 임신중절 수술 때문에 아직도 약물을 쓰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신도들에게 임신중절을 하라고 종종 암시하곤 했다는 전 하나님의교회 지도자 론 라모스씨의 증언도 소개했다.

이 매체는 "신도였던 미셸 폴론씨도 린치우드 하나님의교회 지도자가 '세상의 끝이 가까우니 아이들이 세상에 들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면서 "폴론씨는 하나님의교회 결혼생활에 파탄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변엔 4살 꼬마가...IS영상서 인질단 차 폭파시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최근 어린 소년들을 내세워 인질을 참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네 살배기 아이까지 동원해 공분을 사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 타임스는 11일 영국 태생으로 알려진 이사 데어(4)가 리모컨을 작동해 인질 3명이 탄 자동차를 폭파하는 IS의 선전 영상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영상에서 IS 문양이 그려진 검은색 헤어밴드와 군복을 착용한 데어는 뒤에 있는 차량을 가리키며 "저기 있는 '쿠파르'(kuffar·불신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리모컨을 작동했다. 이윽고 자동차가 폭발해 화염에 휩싸이고, 데어는 승리를 기뻐하듯 오른손을 공중으로 치켜들었다.



지난달 초 IS가 유포한 동영상에 처음 등장한 데어는 영국인 여성 지하디스트 그레이스 카디자 데어(22)의 아들로 알려졌다. 카디자는 2012년 런던에서 데어를 낳고 함께 시리아로 건너갔다. IS는 작년 7월과 이달 초에도 10-11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들로 하여금 인질을 참수하게 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바 있다.

대북제재 강화 후 북한주민들 '이게 다 미국 탓'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이후 미국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AP통신의 평양 주재 기자가 15일 르포 기사에서 소개했다. 에릭 탈매지 평양지국장인 이날 "(핵실험 등 이후) 북한을 둘러싸고 주변국들 사이에서 '폭풍'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해석을 하고 있었다"며 "확실히 미안한 기색은 전혀 아니었다"고 표현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이게 다 미국의 잘못"이라는 잘 연습된 듯한 분노한 대답이 재빨리 돌아온다고 AP통신은 전했다. 14일



김일성광장 인근에서 만난 아동수용소 직원 박미향(22·여) 씨는 기자에게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미국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못 가지게 한다. 공평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박씨는 "오랫동안 제재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며 "우리는 미국 사람들에 대해 증오심이 크다"고 "공손하게" 말했다.

AP통신은 북한 당국자까지 동행한 미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솔직하게 말하길 기대하긴 매우 어려우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아채기도 쉽지 않지만, 반미 감정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거침없는 선동 탓도 있지만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고 국토를 폐허로 만든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미국과 남한 탓에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은 말 그대로 '적'이라고 AP는 설명했다.

이러한 반미 감정을 반영하듯 광산 관련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김초용(49) 씨는 "수소폭탄이 자랑스럽다"며 "우리가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크게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적으로부터의 어떤 공격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실험과 로켓 발사 소식을 반복적으로 전하고 기니니 방글라데시, '헝가리 노동당' 등에서 온 축하 메시지를 연일 소개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는 미국에 맞서 싸울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면 북한도 평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강조해 전달하고 있다.

동성혼 반대했던 보수 성향 미 대법관 사망

미 연방대법원의 안토니o 스칼리아(79) 대법관이 사망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텍사스 서부에 소재한 한 리조트에서 12일 저녁 사망했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사냥 여행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을 통해 "스칼리아는 뛰어난 개인이자 법관이었다"면서 "그의 죽음은 대법원과 나라에 큰 손실"이라고 했다.



스칼리아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서 대법관이 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보수적 성향을 가감 없이 드러내 왔다. 그는 앞서 인종차별 발언과 극보수 성향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08년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제2차 수정헌법에 큰 비중을 둔 판결로 유명하며, 사생활 보호를 중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며 이는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미히스패닉지도자콘퍼런스는 그의 죽음에 대해 "이탈리아 이민자였던 그의 삶의 여정은, 신앙과 교육이 하나로 합쳐질 때 생기는 능력에 대해 말해 준다"며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권, 자유, 행복추구권을 수호하는 데 우리를 헌신하게 한다"고 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연방대법원의 성향이 달라질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오바마 대통령이 잔여 임기 중 대법관 후임을 지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금까지 강경 보수와 스칼리아 대법관을 비롯한 보수파 5명과 진보파 4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한편 스칼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한국계 루시 고(47·한국명 고혜란) 판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워싱턴DC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졸업후 연방법무부, 로펌 등에서 일하다 2008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가 됐으며 2010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 지원 판사로 임용돼 첫 한국계 미국 연방지법 판사로 기록됐다.

고 판사는 세기의 특허재판으로 불린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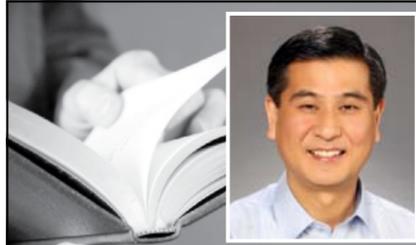
(5면에서 계속)

다보스포럼에서도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5년 내 510만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포털 사이트 다음을 창설한 이재웅 씨는 자동화에 따라 줄어드는 일자리를 경고하며 기본 소득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이렇듯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과 그에 따른 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로봇, 자동차, 게임 분야에서 인간의 직업을 대신하는 것까지. 이미 인공지능의 침공, AI's Invasion은 시작되었다.

이미 인간의 생활에서 몰아낼 수 없을 만큼 깊숙하게 침투한 인공지능이다. 이세돌 9단과 대결하는 알파고에는 경기 도중 상대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딥

러닝'이라는 기술이 접목되었다고 한다. 인간 위에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던 자리를 인공지능이 차지하고 인간을 조종하려 든다면 그 폐해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대결이 인간을 점령하려는 사탄의 꾀계라면, 그래서 인간은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환호하는 것이라면 이는 에덴동산에서의 선악과보다 더 치명적인 독으로 인간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은혜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인간 스스로가 지켜내야 할 보루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펼치는 바둑대결로 인해 인간의 그 무엇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hanmac@cmi153.org



교회역시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5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교리의 형성: 무엇을 믿는가? (7) - 325년 니케아 신조 이후

기독교는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이다. 사랑과 섬김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난 2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나 오면서, 기독교 윤리의 절대적 가치와 상황에 따른 실천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력을 미화시킨 경우도 있었다. 과연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관용의 한계가 어디일까? 원수와 같은 상대라고 하여도 반드시 품어야 할까?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와 “모든 자”에게 적용되어야 할까? 기독교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상대도 무조건 끌어안아야 할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중대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의 이후

니케아 종교회의는 성공적이었다. 특히 니케아 신조를 제정함으로써, 고백적인 교회의 전통을 세운 것은 실로 역사적인 일이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 본질적인 동일성 (homousios)을 강조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르게 고백하게 된 것이다.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니케아 신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성도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상에 성부는 물론 성자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

조물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전혀 없다. 나아가서 ‘로고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철학적인 개념과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혼동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기독교 정립에 대한 초대 교회의 공헌은 지대하다. 니케아 신조를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오래전부터 교회를 위협하던 단일신론의 오류를 시정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세기 초, 교회

본질과 위격의 개념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에 빈틈을 공략한 것이다. 니케아 종교회의가 끝난 후 약 50년간 다시 혼동 속에 빠지게 되었다.

■ 다시 원점으로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은 분명 아리우스의 주장을 정죄하였다. 이 논쟁을 교회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

를 위협했던 양태론(modalism)을 기억할 것이다. 사벨리우스(Sabellius)가 신명기 6장 4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하면서, 삼위일체에 있어서의 위격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교회를 혼동 속에 빠뜨렸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논란이 매듭지어진 것이다.

니케아 종교회의의 패자는 아리우스(Arius)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 동일성을 부정한 자들이었다. 회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그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맹렬한 반격을 시도하였다. 니케아 신조는 성자 하나님의 신성 자체에 대한 고백에 대하여 분명히 하였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는 아니었다. 일단 서방교회의 입장은 오리겐의 종속설로 인한 동방 교회 내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아가서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회 감독들은 교회가 분열될 가능성을 보고 이를 더욱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아리우스는 약 320년 경, 즉 니케아 종교회의가 모이기 전 이미 공의회를 통해 파면을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동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감독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호소한 적이 있다. 아리우스 논쟁이 확대되어 동방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한 것이다. 그의 신분이 장로였기에, 교회 감독들만 모이는 니케아 종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모임에서 아리우스의 주장을 정리하고 대변한 인물은,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Nicomedia, 역사가 유세비우스와 다른 인물)라는 감독이었다. 그는 니케아 신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저주 문구’에 서명을 거부하였고, 결국 감독직을 박탈당하였다.

유세비우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노련한 인물이었다. 그는 337년에 사망한 콘스탄틴 황제의 정치력을 이용하여 아리우스 사상에 반대하던 인물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다. 콘스탄틴이 임종시 세례를 받았는데, 유세비우스가 세례를

이었던 로마제국이 동방과 서방으로 양분 되었다. 동방의 통치자 콘스탄티우스(Constantius)는 아리우스파를, 서방 통치자 콘스탄스(Constans)는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방에 속해있던 아다나시우스가 추방당한 것이다.

동서 교회의 분열이 심화되자, 343년에 동방과 서방 통치자의 합의하에 대규모 종교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니케아 신조를 다시 확인할 뿐 아니라, 아다나시우스의 복직을 결의하였다. 동방 교회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국 콘스탄티우스가 동방과 서방을 통합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그의 직위기간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승승장구하는 한편, 니케아 신조를 따르는 자들은 숨을 죽이고 지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다나시우스는 세 번째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교회가 니

있었다. 오랜 시련을 거친 후 381년에 와서야 비로소 교회가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시편 2:7; 미가서 5:2; 요한복음 1:14, 18; 골로새서 1:5, 히브리서 1:3, 5; 디모데후서 3:6-9; 베드로후서 2:1-9; 요이 1:7-13, 디도서 1:10-16

기독교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무엇을 믿는가? 교회는 성도에게 무엇을 믿고 고백할 것인지 가르쳐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는 것은 신앙의 핵심중의 하나이다. 예수를 믿는 형제와 자매가 나누는 사랑은 반드시 중요한 전제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에서의 진교와 회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오늘 날까지 이어지는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 ‘적그리스도’라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이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대항하는 자들이다. 단지 ‘다른 생각’을 지닌 자들이 아니다. 성도를 신앙의 길에서 배교의 길로 인도하려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자들, 즉 진리로부터 이탈한 이단 지식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물리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라고 권면한다. 사랑과 포용이란 빌미로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이 시대의 큰 목숨에 가족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시며, 그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부정하는 어떤 가르침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니케아신조 후 50년간 정치적 혼란, 381년에 와서야 안정 되찾아 ‘사랑과 포용’ 빌미로 진리 수호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모두 경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 얻은 기독교의 열매를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지만, 세속 정치의 영향력이 성경적 진리를 결정하는 일에 개입하면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정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교회에 정착시키려 하였기 때문이다. 분명 그들은 교회에 속한 형제처럼 보였지만, 이단 사상을 교회에 뿌리 내리려 했던 자들이었다.

니케아 신조를 따르던 자들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을 사랑하고 품어 주었을까? 그렇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들의 오류와 주님의 교회를 향해 저지른 중한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을 베풀 수 없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아다나시우스(Athanasius)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모범적인 목회자를 하던 신학자였다. 그는 정치적 변화에 의하여 세 번이나 감독직에서 추방을 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 정치적 혼란 속의 교회

이미 교회가 황제의 권위 아래 놓인 상황이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정치적인 혼란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특히 콘스탄틴의 죽음 후, 그의 세 아들을 나누어 차지하게 된 상황이 교회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 세계사와 국사에서 익수한 소위 ‘왕자의 난’이 시작된 것이다. 얼마 후, 셋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22)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재를 무릅쓰고 기도하다’는 재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뜻일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교인들의 이마에 재로 십자가 성호를 그려 준다. 이때 사용하는 재는 교인들에게 1년 전에 나뉘준 올리브나무나 종려나무를 태워서 만든 것으로, 물을 섞어서 사용한다. 재로 성호를 그려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선언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순절을 시작한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순절을 ‘재의 수요일’로 시작하는 것은 재가 회개와 참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이때 재를 머리카락이나 손에 뿌려서 쓰거나 아니면 재에 앉아서 기도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삼하13:19). “모 르

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에4:1).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즉 재위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욥42:6).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회개 기도를 했을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단9:3).

재를 무릅쓰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재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다는 말일까? 아니다. 무릎으

로 이해하기 수월해, 무릎이 아니고 무릅이다. ‘무릅쓰다’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다니엘은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다. 그러나 새번역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재를 깔고 앉아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다. 어떤 번역이 맞는 걸일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재라는 말만 나온다. 재에 앉아서 기도했는지,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예수님도 회개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다.

“화가 있을뿐져 고라신아 화가 있을뿐져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원어대로 하면 “재에 앉아서”가 맞다.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보자.

“화가 있을뿐져 고라신아 화가 있을뿐져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원어대로 하면 “재에 앉아서”가 맞다.

새번역 성경은 다니엘서에서는 “재를 뒤집어쓰고”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재에 앉아서”라고 번역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재에 앉아서”라고 번역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를 뒤집어쓰고”라고 번역했다. 새번역 성경에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음은 재에 앉아서 회개 기도를 했다. 다말이나 모르드개는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 기도를 했다. 다니엘은 개역개정에는 재에 앉아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 새번역에서는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재에 앉아서 회개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다.

예수님은 고라신 사람들이었다면 재에 앉아서 회개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새번역에서는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잘못(?) 번역했다.

jinhlee1004@yahoo.com

(4면에서 계속)

우리는 늦어 보일 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빠른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얼마나 애를 썼었나요? 지금 전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 되어져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선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실제 내용을 보면 그는 언제나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한

경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한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안나 선지자도 남편이 죽은 후에 팔십 평생 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사회적 개념으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신뢰를 해보려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답답해해서는 안됩니다. 사무엘이 칠일 만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겠다고 했으면 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올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사울

은 지켰어야 했습니다.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요?

예배를 막 끝낸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물러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번 스스로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을 예배하고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혼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뭐하러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있게 하셨겠습니까? 뭐하러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셨고, 왜 오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

습니까? 어떻게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니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열 번 중에 한 번 틀리면 여러분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도 잘못된 책을 읽으면 그 생각이 사상이 되어지면 진리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환경과 핑계를 의지

사무엘의 물음에, 사울은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므미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는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받 사

울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가 보아야 할 것은 블레셋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핑계거리 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왕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끊어지고 왕권을 잃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실수로 그를 왕위에서 폐하셨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에서 승리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권을 빼앗기면 세상에서 지고 마는 인생이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영적인 권세는 없습니다. 왕권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면서 그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어버리면, 왕권을 잃어버리면 세상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영육간의 삶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축복 권에서 멀어지는 삶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온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회복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메일주소:



청교도 신앙 ③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청교도 운동을 알아야만 할 이유

우리가 신앙과 삶, 교회와 목회, 가치관과 세계관 등을 올바르게 정립하려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든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왜 역사상 일어났던 한 운동인 청교도 운동에 대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알아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준다. 그러나 그 올바른 해석과 적

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에 빠르게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란 생각이 팽배해 있다.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들은 이런 변화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성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가 시대 사조와 풍조를 따라가고 적응하는데 매우 민감한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그래

장 근접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교도들의 사상과 신앙에 대해 더욱 탐색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경적인 목회관의 회복을 위해 청교도 운동을 깊이 알아야 한다.

개혁교회의 목회자는 항상 성경을 따라 계속 개혁되어야 할 필요가

훈 등으로 가정 윤리가 허물어지는 이 시대에 무엇이 이런 윤리를 세우는 실제적인 표본이 될 수 있을까? 청교도들은 무엇보다 경건한 가정에 강조점을 두었다. 자녀들이 정도를 걷고 경건하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갖도록 하는 것을 자녀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이런 가정 윤리와 함께 질서와 예의 및 가정 예배 등이 강조되었다. 청교도들은 가정에서 실제적인 신학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 갔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관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청교도의 구체적인 신앙생활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혁주의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가장 적극적으로 꽃피우고 열매 맺은 역사가 바로 청교도라고 한다. 지금의 교회 생활과 적용을 새롭게 하는데, 이 청교도를 더욱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이 요청된다. 오직 교회의 개혁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청교도들, 종교와 시민의 자유를 위해 몸부림쳤던 청교도들을

청교도 운동은 신앙과 삶에 대해 가장 성경적인 빛을 비춰주는 운동 삶, 구체적 내용, 진리의 심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교량 역

용은 역사의 구체성을 통해서 살펴 보아야만 한다. 그 성경적 적용의 흐름과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과연 우리의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을까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이 당연하다. 교회 지도자들이 미국의 근본과 그 회복에 대해서 거론할 때 항상 청교도운동을 언급한다. 400년 전의 청교도들을 언급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이상, 이것을 연구해야만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서 지금부터 약 20여년 전부터 교회들이 열린 예배, 축제적인 예배, 영성 매체가 활용되는 예배를 강조해 오고 있지만, 그것은 외적인 모양에 대한 개혁에서 그치고 있다.

참된 교회 개혁의 가장 성경적인 내용의 모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청교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교도를 더욱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들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청교도라고 할 수 있다. 피터루이스는 "청교도 목회와 설교"란 책에서 청교도가 신구약성경 밖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교도를 연구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역설한다. 청교도들이 믿었던 성경적인 교리와 체험과 삶의 실천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것은 청교도들이 가장 신앙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고자 애를 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교도를 연구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가

있다. 서창원교수는 "청교도 신학과 신앙"에서 회중 전체가 개혁된 성도가 되는 것이 청교도들의 목회관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청교도들은 철저히 개혁된 목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질서 정연한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언급한다. 진실되고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고 전통적이고 건전한 신학과 노선을 견지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다리는 분위기가 충만하고, 성경적으로 현명하고 성숙하며, 윤리적으로 진취적이고 순종하며, 겸손하지만 받은 구원을 즐겁게 확인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언급한다. 청교도들은 교회와 목회의 본질, 참다운 목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에 합당한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목회와 참다운 교회 추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가정의 점점 붕괴해가는 현상은 사회와 국가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가정파괴, 이혼, 동성연애, 계약 결

알아보는 것이 참으로 귀중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한 신앙의 내용을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여섯째, 성경적 국가와 사회와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청교도들을 알아야 한다.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청교도 사상"에서 청교도의 목표는 영국 국교회의 예배 형태를 성경적으로 수정할 뿐 아니라, 정치와 가정과 사회 경제 체계에 정의를 수립하고, 모든 영국인들을 살아있는 복음적 신앙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이었음을 언급한다. 복음 전파와 가르침, 모든 예술과 과학과 기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을 통해 국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개인적 일 뿐 아니라, 집합적인 경건의 귀감이 되어 세계의 축복의 수단이 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일곱째, 성경을 매우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이고 경건적인 깊이가 있는 도서들이 주는 막대한 영향력이 청교도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영적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 시대의 수많은 책들은 이제까지 역사상 쓰여져 왔던 경건한 책들 중에 가장 성경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온전한 교회의 개혁자 칼빈 이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과 권징조례와 같은 역사적 문서들이 청교도 운동의 과정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청교도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신앙적 최고 유산들을 섭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 운동은 하나의 역사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신앙과 삶에 대해 가장 성경적인 빛을 비춰주는 운동으로, 청교도의 거장들의 삶과 글에서 역력하게 볼 수 있는 운동이기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청교도운동을 심도 깊게 알아야 한다. 청교도는 이론이 아니라 삶이며, 사변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이며, 진리의 피상성이 아니라 진리의 심연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청교도를 알고 연구하고 적용하여 열매맺는 신학과 삶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계속 가져야 할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비범이 쓰임받은 보통 사람들 드보라, 바락

"이스라엘에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되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사 47: 9).

에훤이 사는 동안 80년이나 태평한 세월을 누립니다. 그 정도의 전쟁의 위협이 없이 태평했다면 해이해지는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에훤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니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간 심히 학대하니 부르짖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세는 사람 축에도 끼이지 못했던 말씀에 밝아 지혜롭게 된 덕분에 드보라가 여사가 됩니다. 하나 여자가기에 직접 나서서 외적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제약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일에 본인이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알맞은 사람을 찾아서 서로 은사대로 팀워크 이뤄지면 오히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답대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여장부 드보라가 심지가 약한 바락을 격려해 힘을 얻습니다. 곁에 동행하여 용기를 계속 불어 넣어주어 승리합니다. 도망한 시스라를 헤벨의 아내 야엘의 기지로 잡든 세에 말뚝을 살찌에 박아 죽입니다. 힘을 합해온 바락이 손을 잡고 평범한 여자 야엘과 조국을 지키는 담대한 행위로 20년간이나 극악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가나안왕 야빈을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히 '예'만 됩니다. 저들은 남다른 재주도 힘도 기술도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연합한 그들을 통해 조국에게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나쁜 조건 및, 조상 탓으로 돌리고 문체에 놀리는 것은 운명론에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자연적 환경은 힘들었지만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찾아 삶의 지경을 넓혀 잘난 어느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던 야베스와 같이 연약한 여인네로 일어나 나라를 구한 드보라, 야엘,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디디고 일어난 바락이 자랑스런 믿음의 승리입니다. 저들이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평범한 우리에게 엄청난 격려가 됩니다. 평범한 저들이나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전심으로 믿고 합심한 결과는 상상 외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땅히 일어서야하고 싸워야 할 잘난 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 일을 성사시키십니다. 모든 관원들, 남자들이 고통 받는 조국 따위는 아랑 곳 없어 하니, 비록 여자일지라도 말씀을 품은 자가 주님의 중심의 뜻을 알고 스스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품은 어머니 되었다고 드보라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대를 초월해 도대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이루실 수 있겠는가? 남자가. 어느 집안이다 등의 사람의 제도에 사역자를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은 말씀을 깊이 그러한 가 상고하여 사랑하여 순복함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연합하는 자가 기본 자격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드보라가 아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는 자를 위해 군대도 일으키시는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의 하나님, 때에 따라 알맞은 자를 일으키어 그 뜻을 이루시는 주관자 하나님, 주의 대적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앙망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돌음같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뛰어난 재주도 힘도 없으나 주님께서 계속 권고하여 주시니 드보라와 같이 연약한 심령, 상한 심령들을 일으키어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주님의 군사들로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많은 바락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힘주고 격려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잘난 사람보다는 많은 평범한 그러나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모여들어 크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드보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세우는 말씀 치유, 말씀 회복의 역사가 우선 사모하는 자 안에 온전히 부흥케 기쁨을 철철 부으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신을 온전히 드러며 의탁 드립시다.

약하다 약한 저에게 여러 바락을 내게 도움자로 주시고 말씀 들고 가는 곳마다 주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주님의 승리를 목격하는 자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남은 인생동안 오직 주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더욱 붙들 듯 붙이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는 상한 갈대가 굳굳이 서가는 에스겔 사역 역사를 제대로 감당토록 온전히 내 심령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소서! 지식과 지혜의 성령이시여! 온전한 주님의 마음과 뜻만을 나가도록 사모합니다.

주여! 앞디어 말씀의 기쁨 부으심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기다립니다. 지성소에 온전히 임하소서! 아멘 아멘-

heenlee55@hanmail.net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International Korean Christian Coalition Against Heresy

제5차 총회 개최 공고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의 제5차 총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6년 3월 2일(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Rotex Hotel T. 323.734.1001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세이연의 사역 내용

- 1) 신뢰할 만한 연구보고서와 자료 제공
- 2) 이단에 빠진 이들을 상담하며 회심시키는 일
- 3) 이단에 대한 예방차원의 세미나와 교육
- 4) 이단연구 책자 등 출판사역을 통해 이단파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강구
- 5) 이단들을 옹호하거나 그들을 홍보해주는 친 이단성향의 인사, 단체, 언론에 강력 대응

정치적 외압이나 금권의 유혹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하고 건전한 이단연구단체의 시작을 위하여 오랫동안 이단연구 사역을 해왔던 사람들 중에서 신중하게 엄선하여 함께 연합적인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바른 분별과 대처법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세이연 대표회장 김순관 목사 사무국장 한선희 목사

Home Page : www.ikccah.com / www.ikccah.org
Email: ikccah@gmail.com
질의 및 신고: P. O. BOX 75338 Los Angeles, CA 90075-0338



목회서신

내가 누구입니까?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자기계발과 성공학의 대가인 지그 지글러(zig zigar) 박사가 뉴욕의 한 지하도를 들어가려는데, 거기 한명이 큰 은행건물 앞에서 불쑥 뛰어들고 불펜을 들고 구걸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꾸기에 돈을 던져 넣으면서도 불펜을 가져가지 않았고 거기 역시 형식적으로 불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글러 박사도 다른 사람들처럼 1달러를 주고 불펜을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는 못마땅했지만 할 수 없이 불펜을 주었고, 지글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당신도 나와 같이 엄청난 사업가요. 당당하게 불펜을 팔고 돈을 받는 사업가란 말이오. 그러나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할 필요가 없소." 지글러 박사의

이 한마디에 거지는 충격을 받은 듯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남의 직업을 구걸하는 초라한 자신이 사업가라니...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라, 사장이야... 길거리에서 돈 1불을 받고 불펜을 한 자루씩 파는 사업가라구..."

이렇게 생각의 큰 변화가 일어난 거지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여 훗날 정말로 큰 사업가가 되었고 자신이 그 앞에서 구걸했던 그 큰 은행건물의 소유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2:9).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4:10).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자녀도, 건강도, 사업도, 하루하루 삶도 모두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일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지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자아상이 새로운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 모든 관계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미주 장애인교회학교 지도자 세미나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주최 3월 5-6일 원패밀리교회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이하 한장연 소장 김해용 목사)는 '장애인교회학교 신앙교육의 실제'라는 주제로 미주지역 한인교회들의 장애인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미주 장애인교회학교 지도자세미나'를 오는 3월 5일과 6일 양일간 원패밀리교회(담임 장경일 목사 19208 S. Vermont Ave. Gardena, CA)에서 개최한다.



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해 중요한 사역들로 섬기고 있다. 한장연에서는 장애인사역의 본

질 회복과 각 교회의 사역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교회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위한 다양한 도서 및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여 해마다 소개하고 있으며 각 교회 장애인사역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역자, 교사 및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 교육훈련과 컨설팅 사역으로 섬기고 있다.

본 세미나에는 장애인교회학교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교역자, 교사, 봉사자 및 장애인선교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은 3월 2일(수)까지, 등록비는 60달러(1인)이며 한 교회에서 4인 이상 등록시 50달러(1인당), 토요일 일일 등록시 40달러(1인 Cash only)이다.

등록은 온라인(yungnamson@yahoo.com)으로 받는다. 자세한 것은 손영남 목사 260-515-4211, yungnamson@yahoo.com, 김성광 목사 kmind001@naver.com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KCCD와 엠캘 저소득층 아파트 착공식을 갖고 관계자들이 첫삽을 뜨고 있다

KCCD와 엠캘 저소득층 아파트 착공 1-2 베드룸 월 500-900달러

LA 한인타운에 새로 생기는 저소득층 아파트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개발협회

(KCCD)와 개발업체 엠캘(AMCAL) 밀티패밀리하우징은 11일 버몬트와 베일리 인근 부지(옛 텔레트론 자리, 225 N. Vermont Ave)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메리디안(Meridian) 아파트' 착공식을 열었다.

내년 2017년 9월 말 완공 예정인 메리디안 아파트는 스튜디오와 베드룸 1-3개 등 100세대(유닛)과 지하주차장, 자전거 보관장 등 4500스퀘어피트 크기의 상업용 공간이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의 주상복합이다.

메리디안 입주 자격은 연소득이 LA카운티 중간소득의 30-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며 렌트비는 유틸리티요금을 포함해 방 1-2개 아파트가 월 500-900달러, 방 3개는 월 1,295달러로 예정돼 있다.

엠캘은 개발과 건축 등 총 4600만 달러를 투입해 메리디안 아파트를 짓게 된다. 입주 신청방법은 메리디안 완공 즈음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KCCD (213)985-1500 (박준호 기자)

급진 무슬림보다 극우주의자가 더 위험

(3면에서 계속)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부족이 북유럽에 정착했다고 주장하는 영국인 존 윌슨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생겼다. 반연방주의 집단은 1990년대 초 등장한 훨씬 젊은 부류다. 몬태나 민병대와 미시간 민병대가 대표적이다. 여러 전문가는 1980년대 미국 농장에 담긴 금융위기, 급속한 경제·문화적 변화, 총기규제·환경보호법 도입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근년 들어 민병대 수가 급증한 것은 2007년 12월 경기 대침체의 시작과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출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편견 극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남부 빈민법센터(SPLC)에 따르면 민병대 수는 2008년 42개에서 현재 276개로 늘었다.

우익 극단주의자는 종종 터무니없는 신조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흔히 평범한 이웃처럼 보인다. 전문가에 따르면 그들 중 다수는 피해 망상적이고 자아도취적으로 반민주주의 경향을 강하게 띤다. 그러나 필리프 소장은 "테러리스트의 가장 흔한 특성이 평범함"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그들을 이끄는 힘은 이념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다. 친구와 동료 전부, 정부가 자유를 빼앗고, 모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이며, 소수민족이 미국을 망친다고 선언하면 그 견해에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매우 강하다.

그들 중 다수가 잘못된 정보나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점이 사태를 악화시킨다. 한 민병대 지도자는 2009년 몬태나 주 해밀턴에서 군중에게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테러리즘' 정의는 '협박에 의한 통치'라는 사실을 아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정의는 다른 모든 사전과 똑같이 '폭력과 협박을 사용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

는 것'이다. 혁명을 일으키려고 폭탄을 터뜨리는 행위가 그 정의에 해당한다. 반면 폭발 후 현장에서 주민을 대피시키는 정부는 그 정의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해밀턴에 모인 우익 열성분자는 꾸며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믿었다.

'자주시민' 단체가 주장하는 논리와 '사실'은 너무나 황당무계하다. 그들의 신조는 오래 전 외부 세력이 연방정부에 침투해 불법적이고 암적인 정부로 바뀌었으며 그 '불법 정부'가 미국 시민의 자격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해 모든 미국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노예로 만들었다는 음모론을 바탕으로 한다.

그들은 미국인이 개인의 자주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비밀 계약에 따라 사회보장 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받고 미국 시민이라고 생각하도록 세뇌됐다고 믿는다. 그들 중 일부는 우편번호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역시 '불법 정부'와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주제로 끝없이 장황하게 회화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자주시민' 이념가로 알려진 리처드 맥도널드는 "엄밀히 말해 미국 시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다 보면 실제로 시민인줄 알지만 사실은 어떤 면으로나 미국 시민이란 없다."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자유'와 '독재'라는 단어가 범범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믿게 된다. 그 결과 그들 대다수는 범죄 수사를 받는다. 법정에서도 장황한 음모론을 끝없이 제기해 판사의 골치를 썩인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모든 단순한 장황설이 신봉자들을 폭력으로 이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교통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밀비해하다. 예를 들어 2010년 '자주시민'을 자처하는 조셉 케인은 차를 우라고 명령하는 경찰 2명을 개조

한 AK-47 소총으로 무자비하게 사살했다.

미국 극단주의 민병대는 '헌법'에 충성을 서약하면서도 헌법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민병대는 '헌법'에 충성을 서약한다. 그러면서도 헌법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 그들 역시 '자유'와 '독재'를 자주 들먹이며(실제로 '자주시민'의 일부는 민병대 소속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헌법을 내세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들으면 놀라 기절할 정도다. 미국 헌법은 고매한 표현으로 자유를 논하는 철학적 문장이 아니라 정부의 기능을 규정한 청사진이다. 수정헌법은 시민의 권리를 열거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를 달라며 분노의 장황설을 퍼붓는 최근의 민병대 광기는 자신이 충성을 서약한 헌법의 언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2014년의 '밴디 사건'을 보자. 네바다 주의 목장주 클라이브 밴디는 20년 동안 연방정부 소유지에 소떼를 방목하면서 사용자 납부를 거부했다. 사용료가 10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땅으로 들어오는 밴디의 소떼를 압류했다.

밴디는 '자주시민' 운동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동원해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했다. 그러자 반연방주의 단체가 그를 돕기 위해 무기를 들고 달려갔다. 밴디는 그 땅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민병대 운동의 영웅이 됐다. 그는 헌법과 자유가 유린됐다고 외쳤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그 '기싸움' 아래 깔린 이슈는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 미국 헌법 4조 3.2항은 연방정부 소유지 관리에 관한 모든 법과 규제를 규정할 권리를 의회에 부여한다. 20세기 초 의회는 그 권한으로 행정부가 정부 소유지 운영을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다시 말해 밴디와 지지자들은 연방정부 소유지에 정부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헌법을 무시했다.

(계속)

금식은 천국 향해 속도 내는 영적훈련

(1면에서 계속)

우리의 진정한 욕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교묘히 방해하는 것은 한 돌이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시대에 가장 되살려내야 할 영성 훈련이 금식이라고 확신한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소개한 직후에 금식에 대해 말씀했다. 금식이 주기도문만큼 일상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 복음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말한다.

초대교회의 일부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가운데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일정 기간 함께 금식을 해서 형

제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약간의 시간간만 느껴도 간식거리에 손을 뻗는다. 이런 우리들이 과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5:6)라는 말씀에 나타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자기부인은 매우 금욕적으로 보인다. 일단 자기 앞가림부터 해야 할당은 데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금식 훈련은 우리의 참된 갈망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준다. 금식은 단순한 자기부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의 축제를 정성껏 준비하는 행위다. 철저한 침례교도 클레런스 조던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금식(fasting)은 느림(slowing)의 반대말이다. 이 빠름('fast'는 '금식'과 '빠르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은 곧 천국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이다." 올림픽 출전 수영선수들이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몸의 털을 미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거주장소란 집을 벗고 가끔은 식사도 포기한 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허락하고 계신 새로운 창조세계를 향해 앞장서 달려 나가야 한다.

금식을 하면 진정한 잔치상은 풍성한 음식이 아니라 풍성한 교제로 차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도로시 데이가 늘 말했듯 "천국은 잔치이고 삶도 잔치다. 음식이 변변치 않더라도 친교가 있기 때문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잠시 후 사라지는 값싼 위위가 아니라 진정한 떡, 예수로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EM Pastor 청빙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KAPC) is looking for EM Pastor 주사랑장로교회 (KAPC) 에서 영어목사(파트타임)를 청빙합니다.

POSITION: Part-Time Position

QUALIFICATIONS:

Graduate of or currently enrolled in a reformed seminary. Fluent in English (Korean language ability is also preferred)

APPLICATION DOCUMENTS

Resume with Picture, Personal Testimony & Philosophy of Ministry,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Two Sermon Files

자격조건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분, 영어에 능통한 분 (한국어 의사소통도 가능한 분을 선호함)

제출서류

이력서 (사진 포함), 개인간증과 목회철학 추천서 2통, 설교파일 2개

Please, send all the documents to Pastor John Jung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Attn: Pastor John Jung / 209-08 48th Ave. Bayside, NY 11364

주사랑장로교회 (KAPC)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동부교계 기사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0회 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제40회 총회가 5월 17일(화)부터 20일(금)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뉴저지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다. 회비는 1차마감인 2월 15일까지 등록하면 395달러(부부 770달러)이며, 숙박을 하지 않을 경우 총회비는 150달러다. 현지선교사와 영아권 회원은 50%만 내면 된다.
▲문의: (215)407-3898(정희권 목사), (267)471-7777(최해근 목사)

장미는 사모초청 말씀과 간증집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 45-16 162 St #204 Flushing)는 2월 26일(금)부터 28일(주)까지 3일간 장미는 사모 초청 말씀과 간증 집회를 갖는다. 장미는 사모는 퀸즈장로교회 장영준 원로목사 사모이며, 동부개척장로회신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집회시간은 금, 토 오후 8시30분, 주일은 오후 2시30분.
▲문의: (917)733-7387

PGM 선교사집중훈련
PGM(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선교사 집중훈련이 4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개최된다. 훈련내용은 △선교의 제4물결 △선교란 무엇인가? △타문화권 선교전략 △QT 및 중보기도 △현대선교의 이해 △전문인 선교사례 △전도훈련 △선교간증 및 사례발표 등이다. 등록비는 200달러(부부 350달러).
▲문의: (610)397-0484

뉴저지 말씀교회 "지성소 예배"
"지성소 예배"가 2월 21일(주) 오전 11시 뉴저지 말씀교회(담임 최원석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유태웅 목사로 말씀과 찬양, 집회를 인도한다.
▲문의: (646)258-4161

자녀양육학교 오픈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자녀양육학교"가 3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뉴저지 오피스에서 열린다. 등록비는 160달러.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8가지 가정원칙"의 저자 정정숙 박사가 강의한다.
▲문의: (201)242-4422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월샐
뉴욕지역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월샐이 2016년 3월 19일(토)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20일(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하크네시야 교회(담임 전광성 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강사는 박종선 국제강사로 등록비는 40달러(강의안과 식사 포함), 목회자와 사모는 20달러. ychang311@gmail.com, westpo37@yahoo.com
▲문의: (718)229-9191

담임목사 청빙
시카고 헤브론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대학과 본 교단(KAPC)에서 인정한 신학대학원 졸업(M. Div. 이상), 합법적인 미국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목사안수 후 5년 이상 목회경력(이민목회 포함)이 있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본인인력서 및 사모인력서, 신앙고백과 목회철학서, 자기 소개서, 졸업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추천서 2부(목회자), 최근 6개월내 실고 2회본, 본인 및 가족사진, 교단 소속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마감일은 4월 11일.
▲문의: hebronpsc@gmail.com

퀸즈 YWCA 구정맞이 떡국잔치

퀸즈 YWCA가 지난 9일 구정맞이 떡국잔치를 개최했다. 퀸즈 YWCA는 이날 잔치에 퀸즈 YWCA 장구팀, 에버그린 합창단과 우크렐레 앙상블, 그리고 베이사이드 시니어센터 타이치 강사(Susan Han)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맛있는 떡국과 다양한 한국음식 등을 맛보고, 라플을 통해 많은 상품을 나누며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또 이번 구정행사에 피터구 시의

뉴욕일원 한인교회들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 ... 퀸즈장로교회 15일부터

뉴욕일원 한인교회들이 지난 10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주일을 포함해 15일부터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 지역교계에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많은 교인들이 참석해 예배당을 모두 채웠다.



지난 15일 첫 사순절 새벽기도회에서 퀸즈장로교회 교인들이 찬양하고 있다.

사순절 설교를 맡은 담임 김성국 목사는 이번 사순절에는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 대 주제 하에 6개

의 소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마다 6회의 설교를 한다고 밝혔다. 6개 소 주제는 △따스한 성령님, 이름과 상징 △따스한 성령님, 구원과 동행 △따스한 성령님, 공동체와 예배 △따스한 성령님, 열매와 은사 △따스한 성령님, 비전과 선교 △따스한 성령님, 예수님과 우리이며 각 주제마다 6편의 설교를 하게 된다. 김성국 목사는 첫날인 15일 새벽 설교에서 사도행전 19장 1-7절을 본문으로 "잊혀진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방문 중에 역사한 성령세례에 대해 언급하면서 "창조 시에 혼돈과 공허의 흑암 속에서(르하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창조가 이뤄진 것처럼 성령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따스하게 섬기는 사순절이 되게 하자"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2016년 봄학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지적훈련, 영적훈련, 사역훈련 철저히"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2016년 봄학기 개강예배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학장 유상열 박사가 지난 14일 저녁 6시 2016년 봄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개강했다. 이어서 16일에는 조국환 목사(시애틀 거주)가 "비교종교학" 특강을 했다.

개강예배 설교를 맡은 조국환 목사는 갈라디아서 5장 22-29절을 본문으로 "교회마다 교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교역자 영성 저하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목회자들의 영성이 회복됨으로 목회자에 대한 기대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뉴욕리폼드신학교는 목회자가 지탄받고 있는 이 시대에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학교로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방지일 목사의 '격산덕해'(格山德海)를 소개하며 "첫째

지적훈련, 둘째 영적훈련, 셋째 사역훈련을 철저히 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꾼들로 양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는 유상열 학장 인도로 기도 최미하 전도사, 설교 조국환 목사, 봉헌 및 축도 최호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강도사 고시와 5월 22일 졸업식에 대해 광고가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만찬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동 교는 이번 학기에 신론과 바울신학, 목회상담학, 예배사 등을 강의한다.

(유원정 기자)

위기에 빠진 조국과 미국위해 간구

한기부 2월 기도회, 한재홍 이규섭 목사 설교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이하 한기부) 뉴욕지부 2월 월례기도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렸다. 한기부 뉴욕지부는 이날 △조국 통일 △미국 영적회복과 부흥의 2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 송병기 목사는 "조국이 평화통일보다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에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통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는 조국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합심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송 목사는 또 "미국은 하나님을 떠났다. 청교도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동성애로 다원주의로 세속주의로 타락하고 급진민주주의에 빠져 있지만,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미국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 주님 우리 미국을 다시 한 번 살려주소서. 한인교회를 통해 미국교회가 변화되고, 뉴욕이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전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자"고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한재홍 목사(뉴욕신광교회 원로)는 "갈렘산 제단"(왕상18:30-38)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과거 한국교회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러한 기도의 맥이 끊어졌다. 본문의 엘리야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목사 자신이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각자가 제물이 될 때 우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섬기는 교회도 날마다 부흥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이 회복되고 특별한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섭 목사(퀸즈한인교회 담임)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요 2:1-5)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미국 시대가 이미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포도주가 아니다. 경제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믿음의 문제다"라며, 가나안인간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바꾼 마리아의 믿음, 가나안 수로 보내게 여인의 믿음, 엘리야의 믿음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체험한 소수의 일꾼들처럼 이 시대도 섬기는 자들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 일에 부르신 우리들이 성심성의껏 비빌을 맡은 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회장 송병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김성숙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안창의 목사가 축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Tel: (718)265-259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 FKGS.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Tel: (917)733-7387 45-16 162 St,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Tel: (718)461-7825, CP: (718)938-1777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thome.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cchurch.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o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r,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사도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1A0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Tel: (54)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E-mail: hanmkr@hotmail.com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미주 킹덤드림 선교와 준비' 주제

킹덤드림컨퍼런스, 12-13일 세리토스OMC에서

킹덤드림컨퍼런스가 세리토스 동양선교회(세리토스OMC, 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12일과 13일 양일간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천관웅 목사(뉴사운드교회), 조영태 웨일즈 선교사(PGM), 탁영철 목사(제자들교회), 김만섭 목사(영광장로교회)가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인도했다.

13일 오후 2시 '미주 킹덤드림 선교와 준비'라는 주제로 열린 둘째 날 세 번째 세션에서 강사로 나선 조영태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부름을 받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마음은 뜨거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의기소



킹덤드림컨퍼런스에서 세리토스 OMC에서 열렸다. 사진은 조영태 웨일즈 선교사가 강의하는 모습

침해지는 것"이라 지적했다. 조 선교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것이 다를 때가 많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

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교는 성부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는 주님나라를 위한 영적전쟁이다. 주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하나님나라 영광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선교의 준비현장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몸 되신 교회를 통해 선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선교지가 있다면 복한이나 이슬람권 등 위험지역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기위해 기도하며 섬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킹덤드림 컨퍼런스는 첫날 저녁과 둘째 날 저녁 7시 천관웅 목사의 인도로 킹덤드림 부흥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예수님만 전하고 선교하는 방송국"

GBC 미주복음방송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

GBC 미주복음방송(사장 임덕순 장로)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1일 오후 5시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임덕순 사장은 인사말에서 "25주년 맞이한 복음방송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장으로서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깨가 무거워지는걸 느끼게 된다"고 운을 떼 뒤 "지난 25년 동안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으로 온 미주복음방송 4개월동안 이끌어오면서 그동안 지내온 복음방송 거처간 많은 임직원 노고를 느끼며 이 자리에서나마 그분들께 감사드린다. 25년간 이끌어주시고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 의지하며 몸과 생명이 있는 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진리가 혼탁하고 정의가 표류하는 시대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권세 받은 자로서 자존감 회복하는데 미주복음방송을 이끌어갈 것이다. 예수님만 전하고 복음전하고 선교하는 방송국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이사장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이사 한기형 목사(은혜한인교회)가 기도했으며 목사장로성가단이 특송했다. 이어서 25주년 영상소개와 25주년 약사 보고를 노형진 선교사가 했으며, 2대 이사장 박희민 목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송국(잡25:12-1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축사는 한기형 목사(나성동산교회)와 이영선 목사(미주말씀중단장)가 했으며 GBC 설립자 임종희 목사의 축사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어 감사패 증정시간에는 2대 이사장 박희민 목사, 4대 이사장

김영길 목사, 2대 사장 박신욱 목사, 그리고 3대 사장 송정명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임덕순 사장이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 시와그림 김정석 목사와 GBC남성삼중창, 그리고 GBC여직원들이 핸드벨 연주로 특송했으며 GBC이사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가 중보기도 했다.

미주 복음방송은 "예수님만 전하는 방송"에서, "사랑과 선교를 실천하는 방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이미 전 세계 25개국 28명의 선교사들을 현지의 특파원으로 임명하고 '매일 선교 25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한 현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성가경연대회, 글짓기 대회, 그리고 5월 경 진행될 다민족 청소년 페스티벌 Peace & Harmony 등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GBC복음방송은 지난 12월15일 LA소재 매각했으며 지난 2월8일 애나하임에 신사옥을 매입했다. 신사옥이전과 LA 지사 업무는 오는 6월 30일 시작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미주복음방송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



LAMSC 콘서트가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Sacred Music...하나님 찬양하도록 창조

13일 LAMSC 콘서트, 벨리연합감리교회서

LA무지카 사크라 콰이어(LA MUSICA SACRA CHOIR 이하 LAMSC 지휘자 오정근) 콘서트가 13일 오후 7시30분 벨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현 목사)에서 열렸다.

LAMSC 지휘자 오정근 씨는 "LAMSC는 지난 2015년 2월 첫 주일요일 시작으로 약 30여명의 단원

들이 매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고 말하고 "무지카 사크라라는 Sacred Music이라는 의미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됐음을 고백하며 그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해 처음 마음을 지켜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단체다. 오늘 콘서트를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십자가 그늘 밑에', '주 성령이여 내려오소서',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와 같이 갈 것' 등 성가곡과 '아리랑', '꽃잎' 등 민요와 가곡을 선사했다.

또한 LAMSC 반주자 이하는 자매가 쇼팽의 'Ballade No.4, Op52 in F Minor'을 연주했으며 LAMSC 보컬 코치인 신진미 자매가 베르디의 오페라 라보엠의 'E. Strano...Ah, Fors'e Lui'를 불렀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97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및 사랑의 결혼식 후원 음악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가 주최하는 제97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및 사랑의 결혼식 후원 음악회가 27일(토) 오후 6시30분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개최된다. 본 음악회에는 영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을 비롯해 에버그린 여성합창단, 목사장로부부합창단, LA 남성선교합창단, 한아름 합창단, LA Christian Singers가 참여한다.

▲문의: (949)705-7879, (213)820-9414

김세운 박사 신간 출간기념 북토크

김세운 박사 신간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김세운 박사에게 묻다' 출간기념 북토크가 3월 3일(목) 저녁 7시 미주두란노서원 2층 컨퍼런스홀(616 S. Westmoreland Ave)에서 열린다. 북토크 참석을 원하는 자들은 이메일(seminar@duranno.us) 또는 페이스북(facebook.com/durannous)에 댓글로 신청(이름, 연락처, 참석인원)을 남기면 된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60명에 한한다.

▲문의: (213)235-1068

보치엘레스티 연주회

솔리스트 앙상블 보치엘레스티(Vocielesti) 제 4회 정기연주회가 21일(주) 오후 7시 LA다우나드 콜빈스쿨 지퍼홀(200 S. Grand Ave, LA)에서 열린다. 입장료는 20달러.

▲문의: (213)479-1614, (714)476-6448

세계기도일 행사

세계기도일 행사가 오는 3월 5일(토) 오전 10시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498-7471

기독교 여성리더십 세미나

기독교상담소(소장 염인숙)와 여성교육사역단체인 CWMM(Center for Women in Ministry and Mission 대표 한정자 목사)이 오는 3월 5일(토) 오전 10시 기독교여성교육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기독교상담소(3600 Wilshire Blvd, #820, LA)에서 오후 5시 동안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문의: (213)381-7554

제 9기 예비결혼학교

FBM(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개최하는 결혼 적령기 남녀들을 위한 제 9기 예비결혼학교가 2월 20일부터 3주간 매 토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애나하임(3111 W Orange ave)에서 진행된다. 미혼 청년들과 결혼을 약속한 남녀, 또 결혼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기혼 커플들도 환영한다.

▲문의: (714)287-2458



미주한인재단 주최 이민 113주년 및 미주한인의날 13회 기념 김소문 작품전이 갤러리 웨스턴에서 열렸다

이민113주년 · 미주한인의날 기념 김소문 작품전

미주한인재단(전국총회장 김성웅)은 이민 113주년 및 미주한인의날 13회 기념 김소문 작품전을 11일 오후 4시에 갤러리 웨스턴(210 N. Western Ave. #201)에서 가졌다.

차세대 육성기금 모금을 위해 기부해 이뤄졌다. 지난 43년을 한결같이 '모성'이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김소문 작가의 작품전 주제 역시 '모성'이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0일(토)까지 갤러리 웨스턴에서 열렸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김소문 작가가 최근작 20점을 미주한인재단의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회: 오전 11:00(전통) 주일학교: 오전 11:00(전통) 세례 기도회: 오전 5:40(화-토) www.thanksgivingchurch.org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회: 오전 11:00(영양)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성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전 5:30(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전 5:30(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5:40(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idrock@gmail.com</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회: 오전 11:00(전통) 영양회: 오전 11:20(영양)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kc.org</p>	<h3>대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h3>등문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stgpc.org</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8 L.A., CA 90033</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대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pcl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5:45(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3>베델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전 11:3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양회: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11:00(대학부) 주일학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세계소공교회</h3> <p>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213)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요셉선교회</h3> <p>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3)380-0071, Cell: (213)215-8223 38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p>	<h3>얼마인침례교회</h3> <p>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3:00(화-토) 수요찬양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Fax: (949)857-9472 5101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월셔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토요찬양예배: 오전 11:00 토요찬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3>은혜인교회</h3> <p>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6:00(토) 영양회: 오후 1:00(화-토)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p>	<h3>주님새운교회</h3> <p>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언회: 오후 7:20(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www.gpcj.org Tel: (714)649-9259 Fax: (714)649-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686</p>	<h3>좋은마을교회</h3> <p>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저녁 8:0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www.socialsamsungchurch.org Tel: (714)649-9259 Fax: (714)649-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6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p>	<h3>토렌스주요교회</h3> <p>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양)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중국 종교정책의 상반된 신호 (상)

-저장성정부 요인이 삼자교회 핍박하는 동시에, 북경 중앙정부 요인은 가정교회 지도자들 만나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이 글은 데이빗 로(David Ro)목사가 Lausanne Global Analysis 잡지에 쓴 것을 동 잡지에 허락을 받아 노봉린 목사가 번역한 것이다. 데이빗 로 목사는 보스턴 고든콘웰 신학교 Christy Wilson Mission Center 디렉터, 로잔운동 동아시아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으며 OMF선교사로 중국 (북경)에 10년간 사역했다.[편집자]

중국교회 전문가들은 환란에 빠졌다. 법적으로 등록된 삼자교회는 정부의 공격산하에 빠졌고 그 반면에 불법인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의 초청을 받아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중요한 질문은 중국은 다시 모택동 기독교

정을 받을 수 있는 희미한 희망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2015년 6월 16-18일 북경호텔에서 정부 종교청 요인과 가정교회 지도자들 간의 비 공개모임. 정부요인들은 시주석이 2015년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정교회 지도자들

는 기독교인들을 자유주의자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중국의 상반된 사상-신모택동주의, 신유교주의, 자유주의, 기독교화자-이 같이 "2013년 8월 Oxford Consensus"를 출판했다). 기독교성장의 대중성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좌측세력은 성장하는 기독교를 제한하는 각 지역의 보수주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삼자교회는 사실상 공격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강력하게 되었다. 삼자교회 교인들은 교회 건물 지붕에서 떨어진 삼자가를 꺼내고 수백명의 경찰관이 그들을 진압하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표현한 영웅적 스토리들은 가정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저장성의 삼자교회를 지지하는 호소문을 선포하게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교회 지도자들도 전에는 그들의 대항자였던 삼자교회들과 같이 분리되었던 답을 넘어서 같이 서게 되었다.

왜 시주석이 가정교회 기독교인과 대화하는 문을 열었는가?

설득할 수 있는 논증은 실용주의일 수도 있다. 시주석은 수천만 명의 중국시민들을 인정하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반면에 비판주의자들은 북경정부가 가정교회 지도자

들을 끌어들이며 가정교회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기 원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한 유명한 가정교회 지도자는 근래 북경에서 열린 대화가 시주석 정권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자가) 받고 발표하고 내용과 주어진 신호들로부터 정부의 상층 지도자들이 가정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 중국사회에서 가정교회를 법적 인정받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기도이다." 이 가정교회 지도자는 계속 말하기를 "그들은 가정교회에 높은 희망을 갖고 있다. 그들은 가정교회가 성장위에 세워지며 결론적으로 교회와 정부의 분리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

중요성

만일 중앙정부의 이러한 선언이 사실이라면 근래의 정부/가정교회 대화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수십년간 기도해온 응답을 얻는 영적 돌파구가 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처음으로 얻는 유익은 가정교회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은 지난 60년간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왔는데 앞으로 법적 인정을 받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북경의 한 가정교회 지도자가 가졌던 비전이 완성될 수 있으며 지하교회로 있던 교회가 앞으로 세계선교의 영력을 갖고 "언덕위의 도시, 세계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Rev. Tianming Jin, "City on a Hill").

rohonolulu@gmail.com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이슬람화에 대한 가능한 대책은?

이슬람화한 한 사회나 국가에 이슬람의 원리가 총체적으로 작동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정교분리 정경분리가 불가능하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하나로 통합되는 구조를 취한다. 개인의 종교, 자유 민주주의, 종교 다원화가 철저히 거부된다. 일종의 종교적 전체주의이다.

이슬람화에 대하여 다른 나라가 대처하는 방식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1)프랑스식 모델: 이미 언급한대로 프랑스는 1920년대 계몽주의 철학에 근거 국가 세속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프랑스는 공적으로 종교적 상징이나 용어 등은 사용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미국 지폐인 달러 뒷면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미국도 정교분리 국가지만 기독교 상징이 아직 존재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

무슬림 여성들이 공공장소와 학교에서 히잡 또는 차도르 착용을 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다.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입장과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간인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파리 테러 후 수백 만 명의 시민들이 테러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결의를 보여준 바 있다. 비판의 자유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2) 호주모델: 호주는 초기 무슬림들에게 비교적 관용하였다. 그러나 집단폭력, 테러, 여성 성폭력 등이 발생하자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 무슬림 폭력 견제에 대해 경찰이 총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호주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에게 호주 문화와 가치관에 적응할 것을 은근히 권한다. 호주는 수년전부터 무슬림 이민을 거의 차단하는 상태라고 한다. 바다 건너오는 난민을 철저히 배제한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난민을 외딴 섬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권 침해라는 국제 여론에도 뜻을 꺾지 않고 있다.

3) 일본 모델: 일본은 고임금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적고 무슬림 유입을 보이지 않게 차단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동남아 청년들의 경우도 한국행 희망자는 줄을 서는 반면 일본행 지원자는 거의 없다.

4) 미얀마 모델: 미얀마는 라카인 주에 80만 명의 로힝가 무슬림들이 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미얀마에 살아 왔지만 정부가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고 심지어 거주지마저 제한하고 있다. 유엔인권대사 이양희 박사가 이 문제를 논의하려 미얀마에 왔다가 과격불교지도자에게 "창녀"라는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 국제사회의 회유와 비판이 쏟아지지만 미얀마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불교가 국교라 그런지 대부분 국민들도 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취급한다. 무슬림 인구증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한 가정에 3명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5) 캐나다 독일 등 모델: 캐나다 독일 등 일부 구라파 국가들은 다문화주의 정책 실패의 여론에도 무슬림 난민들을 포용하는 동시에 강력하게 컨트롤 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 문제도 구라파 모든 나라들의 국론이 분열하고 있다. 포용주의자들이 기독교 정식으로 봉사 선교를 하고 있지만 구라파의 포용정책은 모든 종교가 동등하다는 관용주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EU 지도자들은 기독교 정신보다 지나친 종교관용주의자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금 구라파는 관용주의 철학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hijun01@hanmail.net

모택동 민족주의 전환 "토착적 가정교회가 중국 상황에 더 적합" 중국정부 공격으로 강해진 삼자교회, 가정교회와 분리의 담 넘어

핍박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가? 혹은 새로운 종교자유 시대가 열리고 있는가? 상반된 신호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으며 혼돈적이고 아무 확실성이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적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살아 있고 무엇이 중국내에서 곧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과 대화

2014년 4월 산정교회 건물을 파괴하는 사건으로 시작하여 저장성의 공산당 주석 Xia Baolong은 근본적으로 삼자교회와 천주교를 공격하는 정책을 시작하였다. 1200-1500개 십자가를 교회 건물로부터 떼어 내렸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윈저 시내에 있는 수십 개 교회 건물이 파괴되었다.

2015년 7월 교회 핍박이 더 심해지면서 교회 건물 꼭대기에 달려 있는 십자가들을 불에 태우는 사건들이 벌어졌다. 기독교 변호사 장카이는 체포당했고 20명 교회 지도자들과 개혁자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같은 구름이 원주식을 둘러싸고 있으며 시진핑 중국서부의 보안부 지도자들은 2015년 6월 북경에서 중국내의 유명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만났다. 이것은 중국 공산주의 역사상 첫 번째 모임이었다.

정부요인들은 가정교회의 크기, 삼자교회와의 차이점, 토착신학, 가정교회의 부흥, 중국 서부 쪽으로 전달되는 복음운동, 소수민족들, 기독교 이단문제, 사회책임, 도시화 등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다. 정부 지도자들은 가정교회의 합법화 문제를 제기하였고 가정교회가 법적 인

에게 이 뉴스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왜 북경정부는 삼자교회 공격을 허락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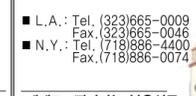
한 추측은 중국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독교를 토착화 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기독교가 강한 원주식과 그 지역의 삼자교회의 세력을 시험하는 것이다(전국의 삼자교회는 "기독교의 중국화" 컨퍼런스를 열고 중국교회가 더 중국화 될 수 있도록 압력을 받았다). 삼자교회는 대형건물과 시야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붉은 십자가를 단 것이 마치 서양의 기독교 성당과 닮았다며 마땅치 않게 여기며 그 반면에 시야에 잘 나타나지 않는 "토착적" 가정교회가 중국 상황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일부의 정부요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그럴듯한 설명은 내적 정치이다. 시주석은 정부의 부패와 무능력을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운동으로 본다. 정부가 교회공격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정치적 전면과 종교청의 정부행정과 삼자교회운동을 재조직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기획일지도 모른다.

제일 간단한 설명은 중국은 현재 전체적으로 모택동의 전 보수적 사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모택동을 옹호하며 민족주의를 회복시키기를 위하여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공산주의 좌측운동이 반 중국이념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며 다원주의, 서양문화가 강력히 지배하는 세계질서를 지닌 자유주의 사회를 받아들이는 자유주의자들을 거절하는 것이다. 중국정부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pscchurch.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 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jkbc.com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전남):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30 송년예배: 오후 8:00 영어, 우리, 영문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근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어, 우리, 영문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grove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 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새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scchurch.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kbc.com	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스델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 오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817)634-8705(H), (254)501-4933(C) 1000 E. Valetre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헌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 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생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n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7:45 청년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격동하는 지구촌의 증말론적 시대상황에 대한 선교전략의 재정립을 위해!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한 위대한 선교비전과 긴박성의 재확인을 위해!
 700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국내외 최고 강사진 200여명과 세계한인선교사 1200여명을 비롯한
 목회자, 평신도, 청년,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및 선교사자녀(MK) 등
 도합 5000여명의 집결을 예상하는 이 시대 최대규모의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전세계 한인선교사 1,200명

제3차 선교사자녀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17세 이상 선교사 자녀 400명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KWMC2016!
 KWMC2016은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선교대회입니다.
 아래 대회들은 모두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동일한 일시인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등 일한 장소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개최됩니다.

영어권대회 English Conference
 18세 이상 영어권 대학생/청년
 이동열 선교사 GKYM 사무총장

어린이선교대회 **청소년선교대회**

3-12세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13-17세 고현진 전도사 고유진 전도사



등록/문의 www.kwmc.com / kwmf2016@gmail.com
 KWMC • 인도네시아 62-813-8100-9905, 070-8221-1361 • 미국 1-213-507-3875

KWMC2016 6월 6-10일	일반 (만26세 이상)	대학생/청년 한어권/영어권 (만18~25세)	청소년 (만13~17세)	초등학생 (만7~12세)	아동 (만3~6세)
1차 3/31 마감	□ \$300	□ \$200	□ \$150	□ \$100	□ \$50
2차 5/15 마감	□ \$325	□ \$225	□ \$175	□ \$125	□ \$75
3차 6/5 마감	□ \$350	□ \$250	□ \$200	□ \$150	□ \$100
KWMC 대회숙박	□ 기숙사 2인1실 \$15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2 베드룸) \$20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1 베드룸) \$215 /1인당 (4박5일)				동숙-무료 별도침대 □ \$50

일시	대회	대상
6/3(금)-6/6(월)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전세계 한인선교사
	MK(선교사자녀)대회	17세 이상 선교사자녀
	MK청소년선교대회	13-16세 선교사자녀
	MK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선교사자녀
6/6(월)-6/10(금)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18세 이상 한어권
	차세대영어권선교대회	18세 이상 영어권
	청소년선교대회	13-17세 청소년
	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어린이

*숙박을 안하실 경우 등록금만 내시면 됩니다. * 하루만 참가하실 경우(DAY-PASS) \$100 입니다.
 *한 교회에서 단체등록시 10명 이상은 등록금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숙박비 제외)

등록/문의 **KWMC** 온라인등록 ▶ www.kwmc.com
 이메일등록 ▶ kwmc@kwmc.com
 전화 ▶ 516-277-2081, 2082
 팩스 ▶ 516-686-6128
 ▶ 등록비가 인상되기 전에 속히 등록하시고 항공편도 속히 예약하실수록 저렴할 것입니다.

KWMC2016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901 E Alostia Ave, Azusa, CA 91702



세계한인 기독교 언론협회 독후감 장려상

김영국 집사 (뉴욕수정성결교회)



데이빗 플래트의 "래디컬 투게더" 를 읽고서

어릴 적 기억에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며 놀던 기억이 있다. 작은 돌은 파장이 적지만 돌의 크기에 따라서 그 파장의 크기는 다르게 마련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어릴 때의 이 기억처럼 저 멀리에 있던 무언가 하나가 가슴 중앙으로 밀려들어 오는 듯했다.

저자의 시작하는 말에서 안데스 산맥 꼭대기 어디선가의 얼음덩어리 위에 맺힌 물방울 하나가 팔찌처럼 내려가며 다른 물방울과 어울려 거대한 아마존 강을 이루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러면서 '혼자는 미미하지만 함께하면 그 영향력은 막을 수 없다'라는 그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동감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다.

즉 '래디컬 투게더'란 사전적인 의미는 종교개혁시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처럼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신앙의 공동체의 각각의 지체와 더불어 온 땅을(세계) 품을 수 있는 영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성도 개개인으로부터 온 교회와 이 땅에 모든 크리스천이라 불리우는 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을 일깨워가는 일종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모티프로서 손색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주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삶의 가장 자리에는 주님이 없고" 나의 자아가 살아서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 신앙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삶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주님을 모두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마치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내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야 하지만 나는 아직도 문을 열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하지만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속담에 의하면 소문난 잔치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많은 장마에도 마실 물이 귀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생각해보면 요즘의 교회들이 치중하고 있는 각종 제자훈련을 비롯하여 교회성장학을 위하여 치중하는 모든 노력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과 같은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추운 겨울에 문밖에 세워두

어서 추위에 떨고 계시는 주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저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실하고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 있는 신앙이 아닌 생명이 없는 마치 빈껍데기와 같아서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래디컬 공동체의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

그것은 돌이켜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일들을 쉽게 망각해 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자는 지적하기를 모든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최선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나로부터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헌신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자신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 만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그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테이블에 올려놓아' 목표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자고 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더 널리 드러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중단하고, 재정과 건물을 희생하고, 더없이 소중한 명예와 전통 등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저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요소로서 우리의 고정된 시각을 바꾸는 방법으로서 "패러다임의 체인지를 제시하였다. 즉 고정된 관념을 바꾸는 일, 그것이 래디컬 공동체가 취하는 가장 큰 변화의 본질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은 모든 사역의 목표로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허사가 되듯이 지금껏 내가 투자한 시간과 계획들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하나님의 최고가 무엇인지 확신이 섰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히 무너뜨리라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변화의 촉매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는 래디컬 공동체로 변화되는 길은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분별하고도 권위 있는 일들에 관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게 될 때야말로 비로소 래디컬 공동체가 운동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리더십이 프로그램과 해야 할 직무를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아닌 개인과 소그룹이 스스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래디컬 공동체의 목표와 방향은 그들의 개별적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될 것과 그것을 두려워 말고 독려할 것 도 아울러 권한다. 래디컬 공동체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계를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래디컬한 공동체는 그 특성상 건강하고 병들지 않은 교회, 즉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누구든지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이유는 빛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할 때야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래디컬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거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또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지라도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로서 돌보아 되고 복음으로 제자 삼는 자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복음을 먼저 듣고 믿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찌면은 세상을 아우르는 일을 위탁하려고 부르셨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르실 것이다. 그리고 구석구석 온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며 거기에 삶을 바치라고 명령하신다. 따라서 모든 민족과 족속, 모든 언어 그룹에 속하는 이들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듣는 날, 인류의 역사는 마침내 주님을 통해서 연약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매일가정예배

허준목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삼상21:1-10)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 할 일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두려워 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용맹스럽던 청년 다윗이 한번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게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1, 2절). 제

사장 아히멜레이 뭔가 심각한 것을 느꼈지만 다윗이 원하는 대로 떡을 줍니다. 두려움이 커지니까 칼을 의지합니다(8, 9절). 사울의 목자장인 도역을 보는 순간 또 두려워하여 도망가고, 이방나라로 도망갑니다(10절). 하나님 한분을 믿으며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던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화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삼상21:10-15)

다윗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도 자신의 피난처를 구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더 멀리멀리 숨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골리앗을 한방에 물리친 다윗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곧바로 다윗을 붙잡아서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 순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쓴 시가 시66편입니다. 다윗은 나를 살려주시지만 하면 내 평생

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다고 서원합니다. 다윗은 그 때 순간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혐오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아니 이런 미치광이를 왜 내게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버려라!"고 함으로써 다윗은 극적으로 탈출하여 아들람 골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수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골로 도망하매(삼상22:1)

본문에서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을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놔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인 다윗이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한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

우심 없이는 단1초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망 다니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미친 체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하고자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시34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목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들고는 그리로 내려가서(삼상22:1)

다윗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나를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제까지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신을 안전한 요새처럼 아들람 동굴에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들람 골에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한 가지 범칙을 배우면서 이제부터는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왕이 되는 훈련을 닦는 모습을 볼 수 있

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삼상 21장과 22장 사이에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달랠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쫓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믿음으로 전진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금 그와 함께한 자가 사백명 가량이었더라(삼상22:2)

다윗이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서 살아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나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한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나

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결국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에게 피신 온 사람들이 모두 다 다윗을 도울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 나라를 이끄는 인물이 됩니다(역대상12장).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토 다 그에게로 모였고(삼상21:1-2)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치를 감취주시고 쫓기에 오히려 대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윗이 비참하게 쫓겨 다닐 때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거짓말하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매고 미친 체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만났다면 아마 실망하여 소망을 잃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은혜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들의 대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타이밍을 맞춰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환난당할 모든 자, 빛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축복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늘 불공평한 사울 왕에게 고난당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원해 모여들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외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umran, Daejeon, Roman Catholic, etc.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 42nd Anniversary & Appointment Ceremony

교회설립 42주년 기념예배 및 장로 · 집사 · 권사 임직식

일시 주후 2016년 2월 28일(주일) 오후 5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예배당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퀸즈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장로



정길표 송동윤

권사



채현주 윤현주 소철화 최미희 소은자

명예권사



유지현 박성희 손순단 조정자

집사



최성호 최진식 계대원 김성민



계연란 문인숙 최효진 박경우 윤지영



엄정희 한금자 한기덕 홍창분



김태선 강성근 김용성 정사용



정경애 이정혜 송순애 최은숙 이희정



김덕례 김침자 홍초자 배영자



심인보 김재현 남정현 윤석현



김주희 홍옥선 우순우 조영숙 이일향



김미자 김정화 정현희



차광혁 정영철 윤지현



양정오 조나영 이숙녀 최경선 윤순자



이주 한인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